

I. 96년 국내 경제의 평가

1. 경기 불황 국면

96년, 국내 경제
본격적인 경기 침체

○ 96년에 국내 경제는 본격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
돌입함

- 성장률은 95년 9.0%에서 6.9%로 하락
- 경상수지 적자가 95년의 89.5억 달러에서 사상 최
대인 220억 달러 내외로 확대

○ 97년에도 경기 침체 국면이 지속될 전망

- 성장률은 96년의 6.9%보다 낮은 6.2~6.5%대를 형성
- 경상수지 적자는 경기 둔화에 따르는 수입 수요
증가세 약화로 96년에 비해 소폭 축소

<96년 국내 경제 실적과 전망>

(단위 : 억 달러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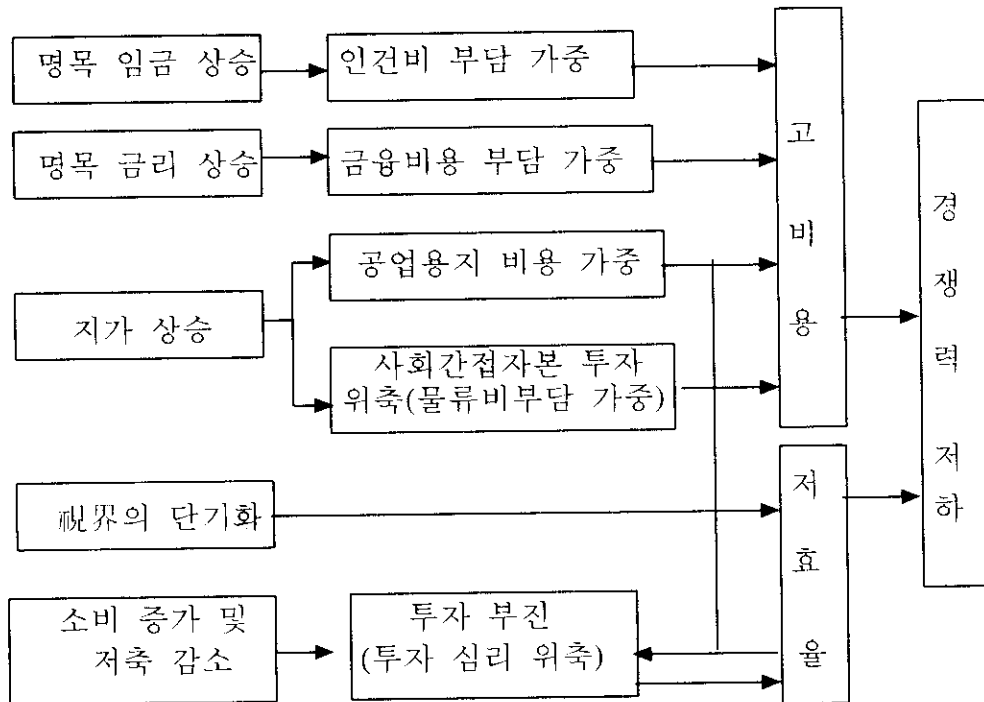
| | 1995년 | 1996년 | | | 1997년 |
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
| | 연간 | 상반기 | 하반기 | 연간 | |
| 국내총생산 | 9.0 | 7.3 | 6.6 | 6.9 | 6.2~6.5 |
| 총소비 | 7.2 | 7.0 | 6.5 | 6.7 | 6.0~6.3 |
| 민간소비 | 7.9 | 7.3 | 6.8 | 7.0 | 6.3~6.6 |
| 총고정자본 형성 | 12.4 | 5.7 | 4.9 | 5.3 | 4.5~6.0 |
| 설비투자 | 15.9 | 3.8 | 4.5 | 4.2 | 1.0~3.0 |
| 건설투자 | 9.9 | 7.2 | 5.0 | 6.1 | 7.0~8.0 |
| 경상수지 | -89.5 | -92.9 | -127.1 | -220내외 | -180~-187 |
| 무역수지 | -47.5 | -54.1 | -85.9 | -140 | -103~-110 |
| 수출입차 | -101 | -77 | -125 | -202 | -185~-188 |
| 수출 (통관기준) | 1,250 | 649 | 646 | 1,295 | 1,396~1,412 |
| (증가율,%) | (30.3) | (11.4) | (-3.3) | (3.6) | (7.8~9.0) |
| 수입 (통관기준) | 1,351 | 727 | 770 | 1,497 | 1,581~1,600 |
| (증가율,%) | (32.0) | (11.4) | (10.2) | (10.8) | (5.6~6.9) |
| 소비자물가(전년말비) | 4.7 | 3.8 | 4.6 | 4.6 | 4.5 |
| 소비자물가(전년말비) | 4.7 | 3.8 | 4.6 | 4.6 | 4.5 |
| 회사채수익률(기말) | 11.9 | 11.7 | 12.0~12.5 | 12.0~12.5 | 11.0~11.5 |
| 원/달러(평균) | 771.3 | 784.5 | 822.0 | 803.0 | 820~830 |
| 엔/달러(기말) | 102.7 | 109.8 | 110~112 | 110~112 | 106~109 |

2. 생산 기반의 취약

국내 경제의 근본 문제
 제는 고비용·저효율
 체제

- 국내 경제의 침체 원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 가능
 - 직접적 원인은 반도체 가격의 하락과 같은 교역 조건의 악화에 있으나,
 - 보다 근본적으로는 「고비용·저효율」 체제라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함

<생산 요소 비용 상승과 고비용-저효율 경제 체질>



3. 선진국 경제와의 동조화 현상 약화

미국 경기 호황 속에
 국내 경기 침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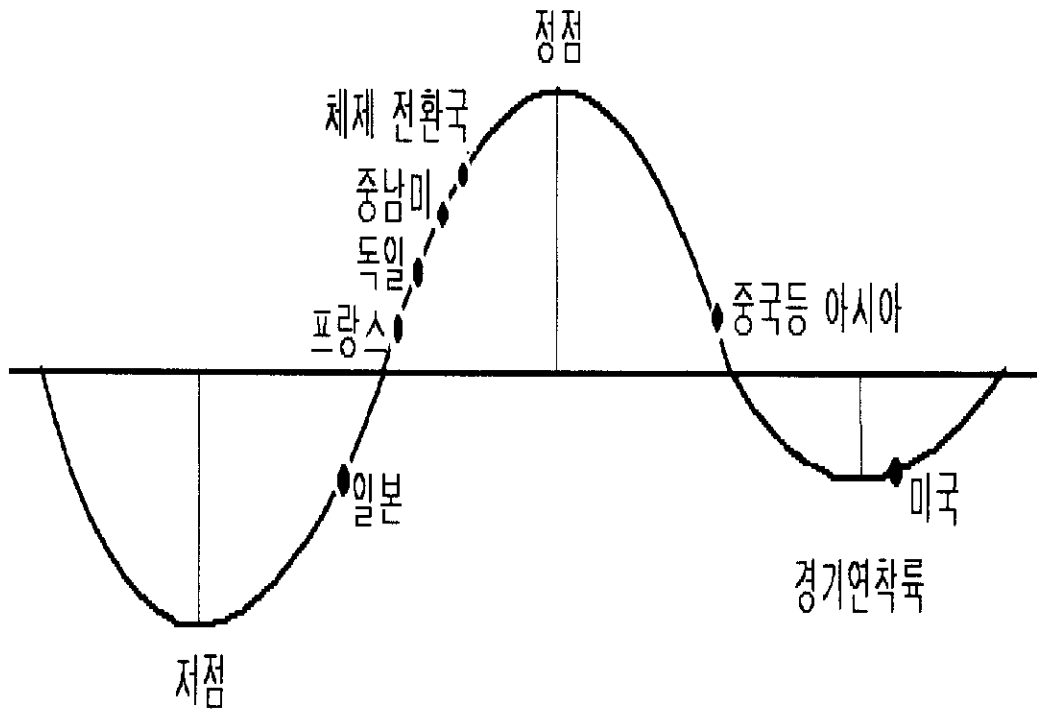
- 3개국의 경기는 93년부터 동반 상승하였으나, 최근 우리 나라는 구조적 경쟁력의 한계로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락
 - 미국은 80년대말부터 리스트럭처링(Restructuring)으로 대표되는 구조적 경쟁력 강화 노력의 결실로

(2) 경기 순환상 각 국별 위치

외국은 경기 상승 후 조정 국면, 중국 등 아시아는 경기 하강 후 연착륙 국면

- 경기 순환 주기상 미국은 경기 하강기에서 연착륙에 성공한 후 상승기로의 조정 국면에 있음
- 일본과 유럽 경기는 침체 국면에서 상승 국면으로 이동 중
-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기는 경기 하강기에서 연착륙 중
- 중남미와 체제 전환국은 본격적인 경기 상승 국면에 있음

<세계 주요국의 경기 순환상 위치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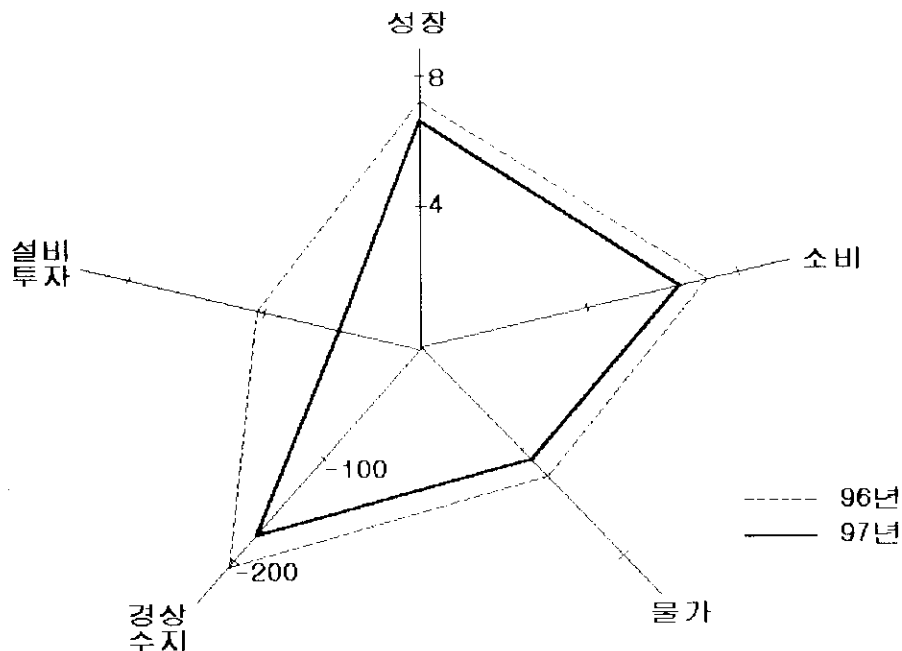


2. 97년 국내 경제의 특징

(1) 복합 불황 심화

수출 둔화, 내수 부진의 복합 불황 심화

- 수출 둔화-내수 부진이라는 「복합 불황」 심화
 - 수출 증가율이 96년의 30.3%에서 96년에는 3.6%, 97년에는 7~8%대로 둔화
 - 특히 기업의 예상 수익률 하락과 경제 여건의 불투명으로 투자가 급락 「투자 불황」 성격이 강해질 전망
 - 민간 소비도 임금 상승률 둔화 등에 의해 신장률 약화
 - 내수 부진에 의한 수입 수요 둔화로 경상수지 적자 소폭 축소
 - 물가는 내수 압력 약화에 의해 상대적 하락세를 띠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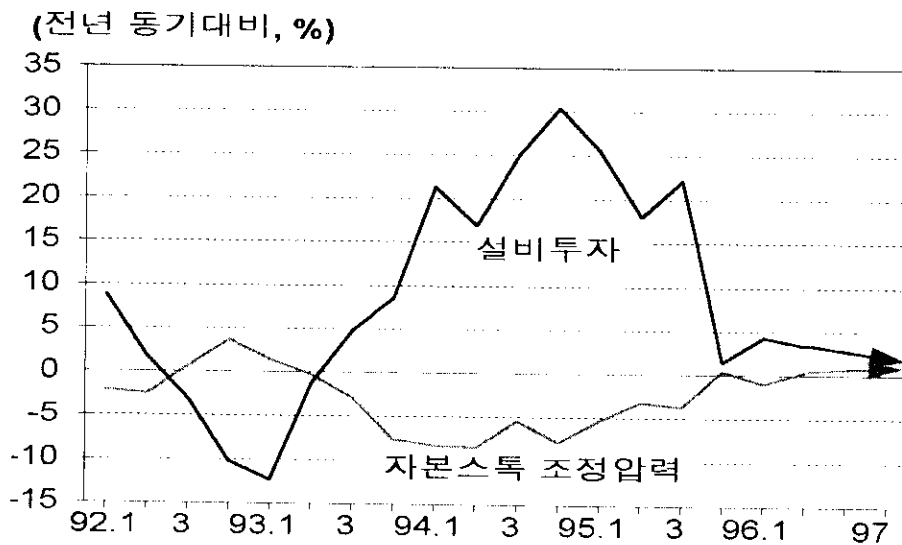
주: 96, 97년 지표는 각각 본 원의 추정치 및 전망치

(2) 급격한 설비투자 위축

설비 투자 부진세 지속

- 97년에도 설비투자의 부진세가 지속되어 설비 투자 증가율은 1.0~3.0% 내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
- 내수 위축과 수출 증가율 둔화에 의한 투자 수요 축소가 당분간 계속됨
- 자본스톡 조정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설비투자가 당분간 계속 축소되어 갈 것임을 말해 주고 있음
- 94~95년에 생산 능력이 크게 확충되어 추가적인 투자 여력이 소진하는 자본스톡 조정 압력이 95년부터 상승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정 압력이 9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

<자본 스톡 조정 압력과 설비투자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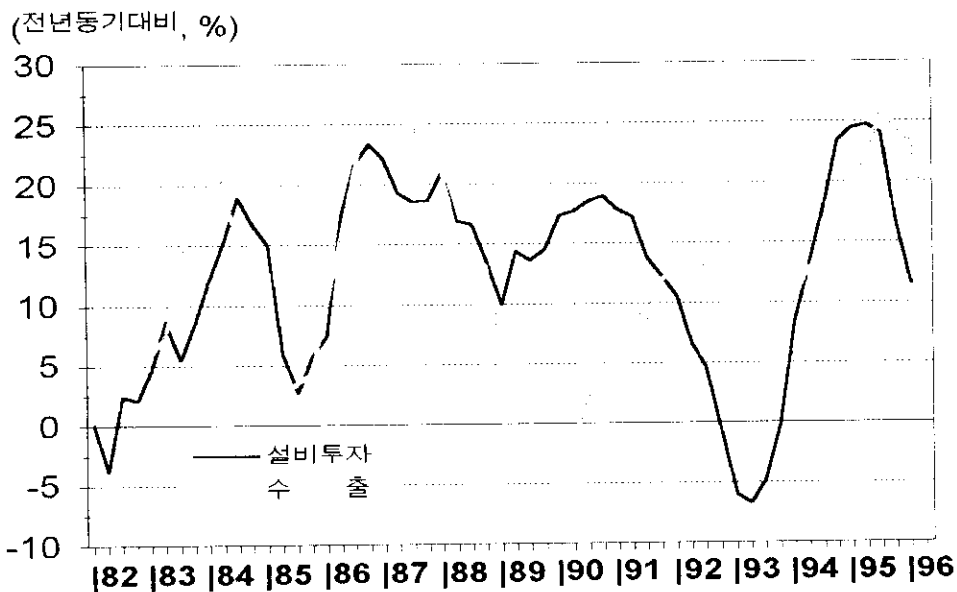
설비 투자와 수출은
동행 관계

- 설비투자와 수출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4분기 이동 평균해 보면 양 변수가 긴밀한 동행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음
- 따라서 외생적 요인에 의해 수출이 대폭 하락하면 국내 설비투자가 크게 영향을 받게되고, 이는 다

시 국내 경기의 진폭을 심화시키는 경로를 반복하게 됨

- 이러한 설비투자과 수출의 밀접한 연관은 국내 시장을 염두에 둔 우리 경제의 안정화 노력에 대한 커다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함

<수출과 설비투자>



주 : 89~91년은 주택 200만호 건설로 투자 촉진
92~93년은 대선 영향으로 투자 증가율 감소

설비 능력 증가를 위한 투자 비중 증가

- 투자 유형별로 볼 때 설비 능력 증가를 위한 투자의 비중이 70% 이상을 점하며 증가하는 추세
- 반면 생산성 향상이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합리화 투자 비중은 매년 낮아지는 추세임
- 95년에 합리화 투자 비중은 12.3%, 연구개발 투자는 4.8%에 불과
- 일본의 경우 95년에 설비 능력 증가 투자 비중은 29.4%, 합리화 투자 38.0%, 연구개발 투자는 8.9%에 이룸

-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노동 수요 증가세 둔화가 노동 공급 증가세 둔화를 앞지를 것이나 그 수준은 미미할 것임
- 96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실업 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 실업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가사 노동을 주로하는 주부나 노령자를 중심으로 늘어날 것임
- 97년 실업률은 2.4%에 이를 것임
- 경기 하강에 따른 노동 수요 증가세의 둔화가 크게 나타날 것이며
- 실업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실업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실업자의 수를 늘릴 것임

<실업률 추이와 전망>

(단위: %)

| | 1995 | | | | | 1996 | | | 1997 |
|--------------|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-|
| | 1/4 | 2/4 | 3/4 | 4/4 | 연간 | 1/4 | 2/4 | 연간 | |
| 실업률 | 2.4 | 1.9 | 1.9 | 1.8 | 2.0 | 2.2 | 1.9 | 2.1 | 2.4 |
| 경제 활동 인구 증가율 | 2.1 | 2.0 | 2.4 | 2.8 | 2.3 | 1.7 | 1.7 | - | - |
| 취업자 증가율 | 2.8 | 2.5 | 2.7 | 3.0 | 2.7 | 1.9 | 1.7 | - | - |
| 제조업 | 2.8 | 1.9 | 1.4 | 0.7 | 1.7 | -1.9 | -2.1 | - | - |
| 서비스업 | 4.4 | 4.9 | 5.3 | 5.8 | 5.1 | 5.0 | 4.6 | - | - |

자료: 통계청, 『한국통계월보』, 각호

주: 서비스업에는 건설업 및 전기·가스 수도업이 포함됨

(5) 경기 전환점 판단

1) 경기 순환 주기

경기 순환상 경기 저점은 97년 1/4~3/4분기

○ 경기 정점이 95년 3/4~4/4분기로 추정됨에 따라 경기 저점은 97년 1/4~3/4분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

- 수축 국면은 거품 경기가 나타났던 제 5 순환을 제외하고는 약 16~19개월 지속되는 경향이 있음
- 따라서 경기 저점은 빠르면 97년 2/4분기, 늦어도 97년 3/4분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

< 우리 나라의 경기 순환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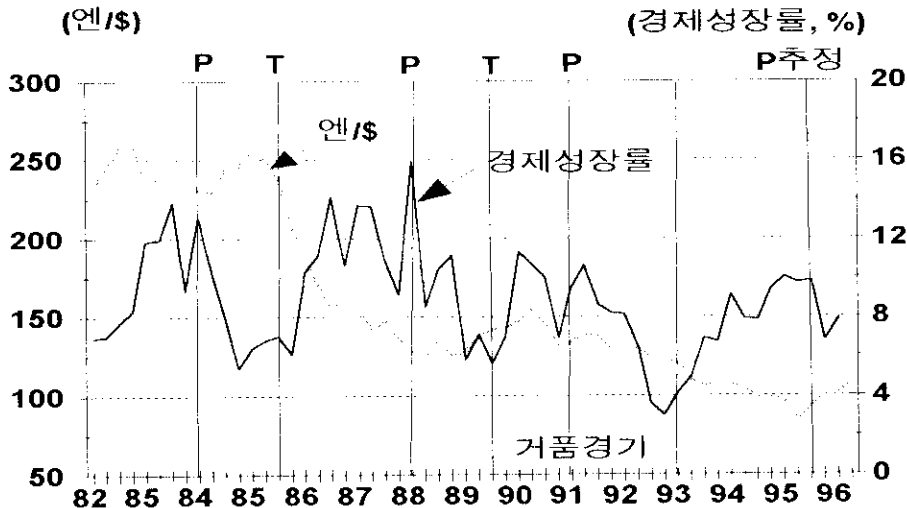
| | 저점 | → | 정점 | → | 저점 | 확장기간 | 수축기간 |
|----------|------|---|----------|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제 1 순환 | 73.3 | | 74.2 | | 75.6 | 23개월 | 16개월 |
| 제 2 순환 | 75.6 | | 79.2 | | 80.9 | 44개월 | 19개월 |
| 제 3 순환 | 80.9 | | 84.2 | | 85.9 | 41개월 | 19개월 |
| 제 4 순환 | 85.9 | | 88.1 | | 89.7 | 28개월 | 18개월 |
| 제 5 순환 | 89.7 | | 91.1 | | 93.1 | 18개월 | 24개월 |
| 제6순환(추정) | 93.1 | | 95.(3/4) | | 97(2/4~3/4) | 32~34개월 | 16~19개월 |

2) 엔화 환율 전망과 경기 순환

엔저 추이를 감안할 때 경기 저점은 97년 하반기

- 경기 저점은 우리 경제가 엔저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시점일 것임
- 89~93년의 거품 경기 기간을 제외하고 엔/달러 환율과 경제 성장률은 역관계를 나타내고 있음
- 엔저 현상은 97년 1/4분기부터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측됨
- 엔화 환율 변동의 영향이 약 6개월 전후로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면 97년 하반기부터는 국내 경제가 엔저 영향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됨

<엔화 환율과 경제 성장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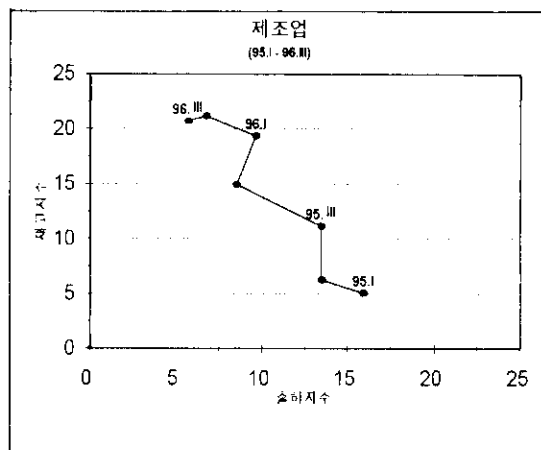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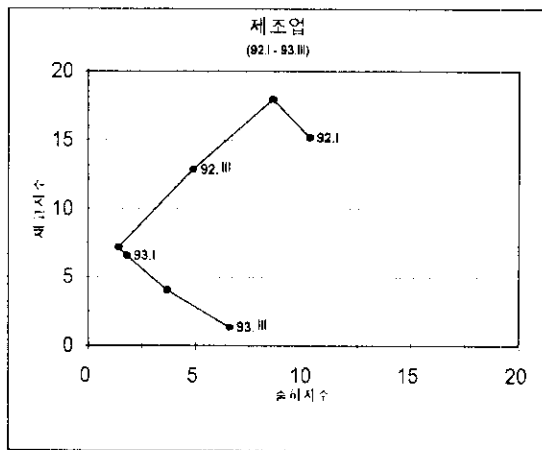


3) 재고 순환 주기

재고 순환 주기상 경기 저점은 97년 2/4 ~ 3/4분기

- 재고 순환 주기상으로 볼 때 경기 저점은 97년 2/4 ~ 3/4분기에 형성될 전망이다
- 96년 3/4분기 현재 제조업 재고율은 최고점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판단됨
- 따라서 재고 정점에서 재고 저점까지 이르는 기간이 1년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금번 경기 저점은 97년 3/4분기 이후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

<제조업 전체 재고 순환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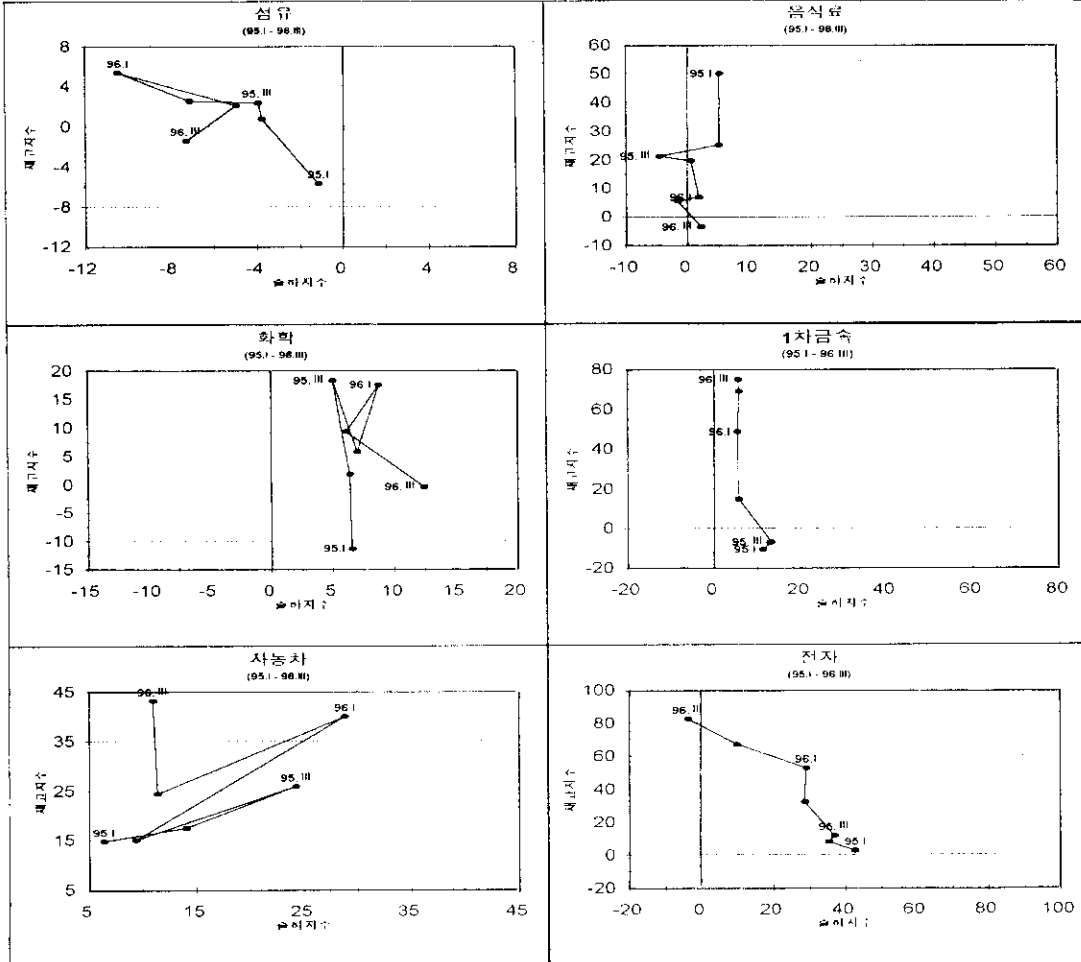


4) 업종별 재고 순환

경공업보다 중화학 공업의 재고 조정 지연될 전망

- 업종별로는 경공업보다 중화학 공업의 재고 조정이 길어질 전망이다
- 음식료품은 재고 조정기 진입, 섬유업은 재고 하락기
- 자동차, 1차금속은 96년 3/4분기 재고 정점 도달
- 전자 부문이 포함된 영상·음향 및 통신 장비는 재고 증가세 지속
- 석유 화학은 출하 증가율이 재고 증가율보다 높은 국면에 있음

<업종별 재고 순환>



5) 종합 판단

국내 경기는 빠르면 97년 상반기중, 늦으면 98년에 가서야 회복

- 경제 내외적인 요소들을 감안할 때 국내 경기는 빠르면 97년 상반기중에, 그리고 늦으면 98년에 가서야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임
- (낙관적 견해) 97년 상반기중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
- 96년 2/4분기가 재고 정점으로 이후 재고 조정 국면이 경공업 중심에서 전산업으로 확산
- 96년 말부터 엔저 현상 약화 시작
-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교역 조건 개선
- (비관적 견해) 98년에 들어서야 회복 국면 진입

- 경기 부진과 장치 산업의 재고 조정 곤란으로 재고 누적
- 97년 상반기까지 엔저 현상 지속
-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교역 조건 악화 지속
- (종합 판단) 97년 중반기나 하반기부터는 경기 회복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으나 회복 정도는 미약할 전망이다
- 국내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인 「저생산성 경제 체질」을 개선하는 데 상당 기간이 필요
- 대선에 의한 경제 여건의 불투명도 경기 회복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

<경기 회복 시점 시나리오>

| 시나리오 | 원 인 |
|------|--|
| 낙관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97년 상반기중 · 엔저 현상 완화 ·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교역 조건 개선 |
| 비관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98년 상반기중 · 엔저 현상 지속 · 주요 산업의 교역 조건 악화 지속 · 대선 등에 의한 경영 여건 불투명 · 구조 조정 미흡 |
| 중립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경기 순환상 97년 중·하반기중에 경기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나 회복 속도는 매우 완만 · 국내 경제의 구조 조정 지연 · 경영 여건 불투명 |

(5) 시중 금리의 하락과 원화 환율의 절하세 유지

1) 시중 금리

시중금리는 11.0~11.5%까지 하락 예상

- 97년 회사채 수익률은 기말 기준으로 11.0~11.5%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
- 97년 회사채 수익률은 기말 기준으로 11.0~11.5%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
- 이는 성장 둔화에 의한 기업 자금 수요의 축소가 예상되며

-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외 금리차 확대에 의해 해외 자본이 급속히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이기 때문임
- 다만, 하반기부터 예상되는 완만한 경기 상승과 12월大選에 의한 자금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시중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

2) 국내 환율

97년 원/달러 환율은
평균 820~830원

- 97년 원화의 대달러 환율은 전년 평균 대비로 약세화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① 대외수지 개선에 중점을 두는 경우 달러당 850원 이상을, 또는 ② 해외 차입금 부담과 물가 부담을 감안하여 경제의 안정 운용을 중시하는 경우 달러당 830원 내외 등 2가지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음
 - 원/달러 환율의 약세화 근거는 ① 수출의 회복이 불확실하고 ② 94년 이래 지속되어온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해소되지 않고 외채가 누증되며, ③ 경기가 침체되고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크게 회복되지 않는데 있음
 -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紙는 원/달러 환율이 달러당 1000원까지 절하될 가능성을 보도함으로써 한국 수출의 구조적 애로점을 지적한 바 있음
 - 반면, 원/달러 환율이 현수준을 유지한다는 근거로는 ①97년 엔/달러 환율의 절상, ②국내 기업들의 해외차입 부담 및 물가 상승 압력의 가중 등을 상정할 수 있음
- 종합 판단하건대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97년 평균 환율은 달러당 820~830원으로 전망됨

III. 97년 국내외 주요 경영 환경

1. 해외 부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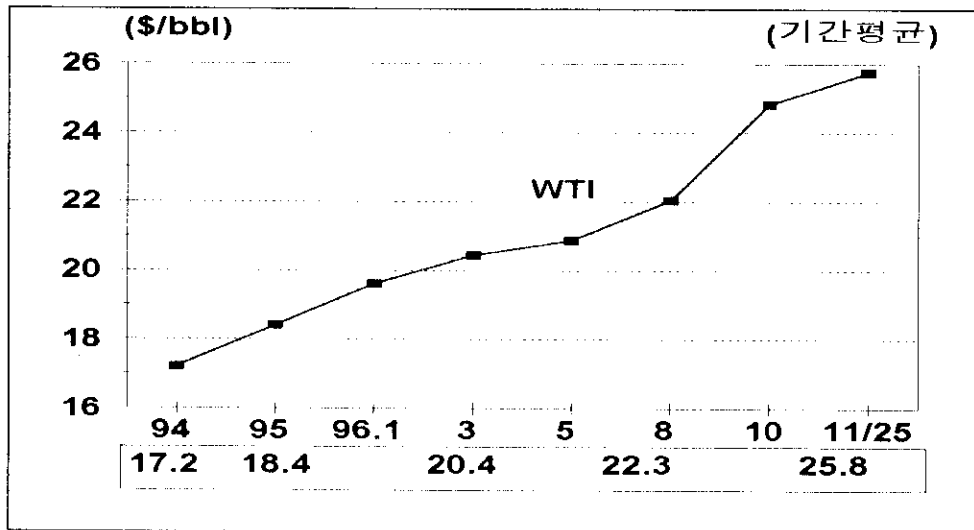
(1) 국제 원유 시장의 안정

96년 유가 강세 노정

○ 96년 유가 강세의 원인

- 96년에 유가는 강세 기조를 유지하였음
- 유가의 강세는 수요 측면에서는 이라크 사태로 인한 시장 심리의 불안정과 이상 한파에 기인하고,
- 공급 측면에서는 UN의 이라크 석유 수출 봉쇄, 석유 메이저社의 Just-in-Time 재고 유지 정책에 기인함
- 원유 수요의 증가와 원유 공급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유가 상승을 가져왔음

<국제 원유가 추이>



<96년 유가 강세의 분석>

| | 수요 측면 | 공급 측면 |
|--------|--|---|
| 규칙 변수 | · 경기 및 산업 구조 : 發電 및 수송 부문의 수요 증가 | · 석유 메이저社의 재고 유지 정책 : Just-in-Time 재고 유지 정책으로 공급 감소 |
| 불규칙 변수 | · 시장 심리적 요인 : 이라크 사태로 인한 수요 증가 · 기후적 요인 : 지난 겨울 유럽과 미국의 이상 한파 | · 정치적 요인 : 이라크 석유 수출 금지로 공급 감소 |

97년 유가 안정 예상

○ 향후 유가 변동의 예측

- 수요 측면에서는 주로 시장 심리적 요인과 기후적 요인과 같은 불규칙 변수가 수요 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
- 걸프 지역의 안정성 여부가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줄 것임
- 환경 라운드 등이 가시화될 경우 수요의 감소가 예상됨
- 공급 측면에서도 정치적 요인 같은 불규칙 변수가 공급 측면에 영향을 줄 것임
- UN의 이라크 석유 수출 재개 허용, OPEC의 산출 쿼터 증대 움직임, 석유 메이저社의 안정적 원유 공급 등으로 공급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- 이에 따라 97년의 원유의 수요 예상량은 하루 평균 7,350만 배럴, 공급 예상량은 7,400만 배럴로 50만 배럴의 공급 초과가 예상됨
- 따라서 유가는 WTI 기준으로 23~24 달러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됨
- R. Lukeman OPEC 사무총장도 당분간 유가는 24 달러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
- 경제위원회에서도 배럴당 23~24 달러 수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

- 불규칙 변수에 의한 단기적인 유가 등락이 있더라도 선물 시장의 활성화 등으로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
<국제 원유 수급 상황>

(단위:백만 b/d)

| | 1996 | | | | | 1997 |
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| 1/4 | 2/4 | 3/4 | 4/4 | 평균 | |
| 수요(A) | 73.3 | 69.7 | 70.4 | 73.9 | 71.8 | 73.5 |
| 공급(B) | 71.2 | 71.5 | 72.8 | 73.4 | 72.2 | 74.0 |
| OPEC | 28.5 | 28.6 | 29.4 | 29.5 | 29.0 | 29.7 |
| 비OPEC | 42.7 | 42.9 | 43.4 | 43.9 | 43.2 | 44.3 |
| B-A | -2.1 | 1.8 | 2.4 | -0.5 | 0.4 | 0.5 |

자료 : EIA, Short-Term Energy Outlook, 1996 3/4

<97년 유가 예측시 고려할 요인>

| | 수요 측면 | 공급 측면 |
|--------|---|--|
| 규칙 변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경기 및 산업 구조 : 97년에 세계 경기 회복에 따라 수요 증가 · 환경·에너지 정책 : 환경 오염에 대한 규제로 수요 감소 · 기후적 요인 : 상반기에는 난방유 수요 감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석유 메이저사의 재고 유지 정책 : 공급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선회 |
| 불규칙 변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장 심리적 요인 : 걸프 지역의 안정 여부가 변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정치적 요인 : 이라크 석유 수출 재개로 공급 증가 · OPEC의 생산 쿼터 상향 조정 여부와 비OPEC 국가들의 생산량 조절 여부가 변수 |

(2) 아시아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노출

동남아시아 경제 둔화 ○ 중국 및 홍콩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지난해까지 높은 경제성장세를 지속하였으나 금년 들어 수출신장세가 둔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였음

<아시아 주요 국가의 경제성장, 수출 및 물가>

(%)

| | 경제성장 | | | | 수출증가 | | | | 물가상승 | | | |
|-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|
| | 94 | 95 | 96 | 97 | 94 | 95 | 96 | 97 | 94 | 95 | 96 | 97 |
| 대만 | 6.5 | 6.1 | 6.0 | 6.2 | 5.5 | 12.9 | 5.6 | 9.0 | 4.1 | 3.7 | 3.0 | 3.4 |
| 홍콩 | 5.5 | 4.6 | 4.4 | 5.0 | 9.8 | 11.8 | 2.4 | 7.7 | 8.1 | 8.7 | 6.4 | 7.3 |
| 싱가포르 | 10.1 | 8.8 | 7.7 | 7.7 | 20.1 | 14.6 | 10.3 | 12.8 | 3.0 | 1.8 | 1.4 | 1.7 |
| 말레이시아 | 9.2 | 9.6 | 8.5 | 8.2 | 20.6 | 19.0 | 6.5 | 10.3 | 3.7 | 3.5 | 3.6 | 3.7 |
| 인도네시아 | 7.5 | 8.1 | 8.0 | 7.7 | 7.3 | 14.9 | 13.1 | 10.9 | 8.5 | 9.4 | 8.2 | 8.6 |
| 중국 | 11.8 | 10.2 | 9.5 | 9.6 | 25.2 | 20.7 | 8.7 | 11.8 | 21.7 | 14.8 | 7.2 | 8.1 |
| 태국 | 8.7 | 8.7 | 7.4 | 8.3 | 18.1 | 23.8 | 6.7 | 15.6 | 5.2 | 5.7 | 5.9 | 5.4 |

자료 : WEFA, World Economic Outlook, November 1996.

○ 아시아 경제의 침체 요인

- 경기순환적 요인

| | |
|------------|---|
| 전자제품의 수출부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자제품의 수출은 동남아 경제성장의 基軸 금년들어 전자제품은 세계시장에서 수요 부진으로 공급과잉과 수출단가 하락 초래 |
| 긴축정책 실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국,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정책적으로 경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긴축정책을 실시 중국은 작년말부터 수출산업에 대한 각종 혜택을 축소함 |

- 구조적 요인
 - 단기적 경기순환적 요인 이외에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공급 측면에서 제약조건들을 개선하여야 함. 구체적으로 자본시장, 인프라, 노동력 및 에너지 부문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함

| | |
|------|--|
| 자본시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선진국에 비하여 자본시장의 효율성 낙후 • 투자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 필요 |
| 인프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력, 도로, 통신 등의 기본적 인프라 취약 |
| 노동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태국,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단순기술 노동력이 이미 부족한 상태 •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 확충 필요 |
| 에너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동남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막대한 에너지의 지속적 확보 요청 • 중국도 1993년부터 에너지 순수입국임 • 새로운 에너지원의 지속적인 개발과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을 증대하여야 함 |

<주요 국별 시장규모(95년 기준)>

| | 인구(만 명) | 경제규모(억 달러) | 1인당 GNP(달러) |
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대만 | 2,122 | 2,600 | 12,264 |
| 홍콩 | 619 | 1,485 | 23,987 |
| 싱가포르 | 299 | 851 | 28,464 |
| 말레이시아 | 1,990 | 838 | 4,204 |
| 인도네시아 | 19,400 | 1,981 | 1,022 |
| 중국 | 121,000 | 6,555 | 539 |
| 태국 | 6,020 | 1,670 | 2,774 |

자료 : WEFA, World Economic Outlook, November 1996.

(3) 중남미와 체제전환국의 경기 호조

1) 중남미

중남미 경기 회복

○ 주요 국별 경기 현황

- 중남미 국가들이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의 성장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

| | |
|-------|---|
| 멕시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95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96년 3.6% 성장 전망 · 외환 위기의 진정, 국제 유가 강세 기조, 평가절하로 인한 수출의 가격 경쟁력 회복 등이 경제 회복의 요인 · 수출 부문의 호조가 내수로 연결될 경우 장기적 성장 가능 |
| 브라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초인플레이 억제는 성공하였으나 국제수지 악화 문제 발생 · 인플레이 억제를 위해 고평가된 레알貨의 유지가 원인 · 물가안정에 따른 기업 투자 확대에 향후 안정적 성장 기대 |
| 아르헨티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멕시코 외환 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아 95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, 안정 국면으로 회복중 · 반면, 고실업률, 재정적자 확대 심화가 당면 과제로 등장 |
| 페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후지모리 정권 등장 이후 안정화 정책으로 물가 상승률 둔화 · 공공 지출 축소, 민영화 등으로 재정수지가 호전되어 안정화 지속 · 고실업률, 무역수지 적자 등이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임 |
| 칠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통적인 남미의 고성장 국가 · 중남미에서 가장 개방화되었으며, 선진국과의 경제 협력에 적극적 |

○ 중남미 주요국의 장기 경제 전망

-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이 지속되면서 물가가 안정될 전망이다

| | 경제성장(%) | | | | 물가상승률(%) | | | |
|-------|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| 95 | 96 | 97 | 98 | 95 | 96 | 97 | 98 |
| 멕시코 | -6.2 | 4.2 | 4.7 | 5.3 | 35.0 | 34.6 | 21.2 | 17.7 |
| 브라질 | 4.1 | 3.1 | 5.1 | 5.2 | 76.8 | 16.4 | 12.7 | 11.6 |
| 아르헨티나 | -4.4 | 2.7 | 3.8 | 4.2 | 3.4 | 0.2 | 2.5 | 3.1 |
| 페루 | 7.0 | 3.2 | 4.4 | 4.7 | 11.1 | 11.6 | 10.6 | 9.4 |
| 칠레 | 8.5 | 7.5 | 6.0 | 5.0 | 8.2 | 7.3 | 6.1 | 6.0 |

자료 : WEFA, World Economic Outlook, November 1996.

○ 주요 국별 시장 규모(95년 기준)

- 멕시코와 브라질이 경제 규모면에서 가장 큰 시장성을 지님

| | 인구 (만 명, %) | | 경제규모 (억 달러, %) | | 1인당 GNP (달러)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
| | 국별인구 | 비중 | GDP | 비중 | |
| 멕시코 | 9,032 | 19.6 | 2,525 | 21.0 | 3,137 |
| 브라질 | 16,469 | 35.0 | 4,324 | 36.0 | 4,419 |
| 아르헨티나 | 3,427 | 7.4 | 1,969 | 16.4 | 8,165 |
| 페루 | 2,386 | 5.2 | 476 | 4.0 | 2,550 |
| 칠레 | 1,424 | 3.1 | 483 | 4.1 | 4,727 |
| 중남미 전체 | 46,091 (8.2) | 100.0 | 12,004 (6.2) | 100.0 | 3,525 |

자료: Inter-American Development Bank, *Economic Situation & Prospects*, Oct 1996.
World Bank, *World Development Report 1996*, 1996

주: ()내는 세계 전체에서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(%)임

○ 우리나라와의 경제 교류 현황(96년 1~10월)

- 대 중남미 교역 비중은 아직까지는 미미

| | 수출 (백만 달러, %) | | 수입 (백만 달러, %) | | 직접투자 (백만 달러, %)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| 금액 | 비중 | 금액 | 비중 | 금액 | 비중 |
| 멕시코 | 916 | 0.87 | 315 | 0.27 | 30.8 | 0.63 |
| 브라질 | 1,160 | 1.10 | 1,118 | 0.95 | 19.9 | 0.41 |
| 아르헨티나 | 362 | 0.34 | 204 | 0.17 | 20.0 | 0.41 |
| 페루 | 172 | 0.16 | 143 | 0.12 | 0.3 | 0.01 |
| 칠레 | 518 | 0.49 | 943 | 0.80 | 35.9 | 0.73 |
| 중남미 전체 | 7,280 | 6.91 | 3,617 | 3.07 | 288.1 | 5.86 |
| 세계 | 105,386 | 100.00 | 117,962 | 100.00 | 4,913.5 | 100.00 |

자료 : 한국은행, 「1996년 10월중 국제수지 동향」, 1996. 11.
무역협회, KOTIS

한국은행, 『해외투자통계연보』, 1996. 5.

주 : 직접투자액은 1995년 기준

○ 향후 우리나라의 진출 가능성

| | |
|-------|---|
| 멕시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NAFTA 회원국으로서 북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 · 국내의 1/5에 불과한 저렴한 임금 수준 |
| 브라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세계 철광석의 1/3 보유 등 미개발 부존 자원 풍부 · 1억 5천만 인구의 거대한 시장 규모 · 칠레, 콜롬비아 등과 함께 향후 10년간 6천억 달러를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투입할 계획 |
| 아르헨티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장 규모가 작고, 전반적인 산업 시설 낙후 · 지나친 보호무역이 교류 확대의 걸림돌 · 지역 경제 기구를 이용한 주변국 진출 거점 가능성 |
| 페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반적 사회간접자본 낙후 · 개방화 정책이 결실을 맺고 있어 안정적 성장 전망 |
| 칠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세계 최고의 동맥질 보유 · 경제 개방도가 가장 높은 남미 국가 · APEC 회원국으로 남미 진출의 교두보 역할 가능 |

2) 동유럽 체제전환국

동유럽 체제전환국, 꾸준한 성장 예상

- 97년중 동유럽 체제전환국들은 96년과 마찬가지로 꾸준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지만,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 국가 연합(CIS)의 경제 성장률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
 - 동유럽 및 발트 3국의 경우 주요 수출 시장인 서유럽 국가의 경기 상승으로 인한 경기의 동반 상승이 예상
 - 독립국가연합(CIS)의 경제는 97년 물가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다소 부진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

| | 동향 및 특징 | 전망 |
|-----------|--|---|
| 동유럽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조업 생산은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꾸준히 증가 무역수지는 자본재 수입 급증 및 환율 절상의 여파로 최근 들어 악화 EU편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에 따라 자국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역내협력 활성화 (CEFTA: 중유럽자유무역협정, BSEC: 흑해경제협력공동체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향후 2000년까지 5%이상의 경제 성장이 유지될 전망 물가 상승률도 꾸준히 낮아질 전망 서방 국가들의 투자 진출은 지난 90년부터 95년까지는 271억 달러 (외국인 투자 누계액)에 머물렀으나 96년부터 2000년까지는 638억 달러로 증가될 전망 |
| 구소련 (러시아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불투명한 정치 상황에 따른 외국인 투자 저조와 중앙과 지방 정부간의 재정이전상의 문제로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 중앙은행의 강력한 긴축정책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하락세. 그러나 고금리 등 투자환경 악화로 설비 투자는 위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늦어도 98년부터는 陽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됨 (97년 전망은 기관별로 상이) 97년 전망의 경우 WEFA(+2%)와는 달리 독일의 연구기관들은 러시아의 높은 금리와 투자 환경 악화를 고려하여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 |

○ 경제 규모

(달러, %)

| | GDP(1995) (역내 비중) | 인구 (백만명) | 1인당 GDP | GDP 성장률 전망치 | 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| | | | 1996 | 1997 | 1998 | 1999 | 2000 | 2001 |
| 폴란드 | 1,180억 (16.7%) | 84.54 | 3,057 | 5.25 5.5 | 5.5 5.0 | 5.2 | 5.0 | 5.0 | 4.6 |
| 체코 | 447억 (6.5%) | 10.33 | 4,331 | 5.1 4.5 | 5.6 4.5 | 5.2 | 4.9 | 6.0 | 6.0 |
| 헝가리 | 454억 (6.2%) | 10.26 | 4,459 | 1.5 1.0 | 3.0 2.0 | 3.5 | 4.0 | 4.5 | 5.0 |
| 러시아 | 4,070억 (51.6) | 147.97 | 2,749 | -4.0 -5.0 | 2.0 -2.0 | 6.0 | 6.0 | 5.0 | 5.0 |
| 우크라이나 | 407억 (5.1) | 51.91 | 798 | -7.0 -7.0 | 1.0 -2.0 | 5.0 | 5.0 | 5.0 | 5.0 |
| 전체 규모 | 288,927 (0.05) | 52,882 (7.3) | 5,376 (40.0) | - | - | - | - | - | - |

자료 : WEFA, World Economic Outlook, 1996. 11.

독일 6개연구소, Die Lage der Weltwirtschaft 97, 1996. 11

World Economic Forum,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1996

주 : 1) 역내규모는 이 지역 총GDP중 국별 GDP비율

2) 1996, 1997 전망중 하단은 독일 연구소 합동 추정치임

3) 전체 규모 중 ()내는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
국내 기업들의 동유럽 내 생산 거점 확보 필요

- (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가능성) CEFTA의 조기 자유무역지대화, 97년부터의 동군 EU가입 논의 시작에 따라 이 지역내의 생산 거점의 확보가 필요
 - 거시 전망 수치를 고려해 볼 때 동유럽의 성장 가능성과 시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.
 - 저임금으로 기술 인력의 확보가 가능. 폴란드의 경우 임금 수준은 한국의 1/3 정도
 - 가격·무역 자유화, 공기업 민영화는 빠른 속도로 진전
 - 그러나 산업 구조 조정, 사회간접시설 확충, 금융기관 설립 및 법률제도 정비 등은 최근 들어 시작 → 각종 SOC에 대한 참여 여지가 많을 것으로 전망
 - 체제전환과정에서의 국민들의 소비욕구 변화에 따른 물류 및 유통수요가 증가 → 이 부문에 대한 투자도 유망

(4) 달러 약세 기조 · 국제 금리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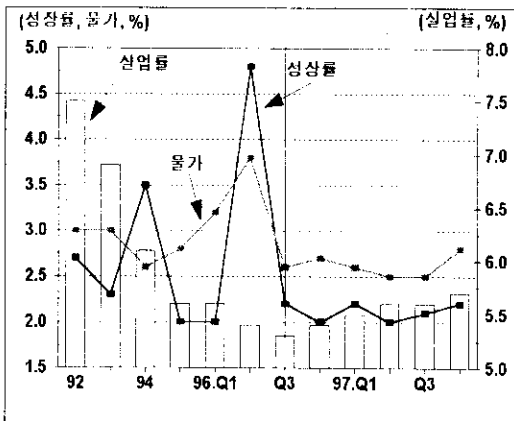
1) 미국 경기 현황 및 97년 전망

96년 3/4분기부터 미국 경기 진정

○ 과열 양상을 보였던 미국 경기가 3/4분기에 진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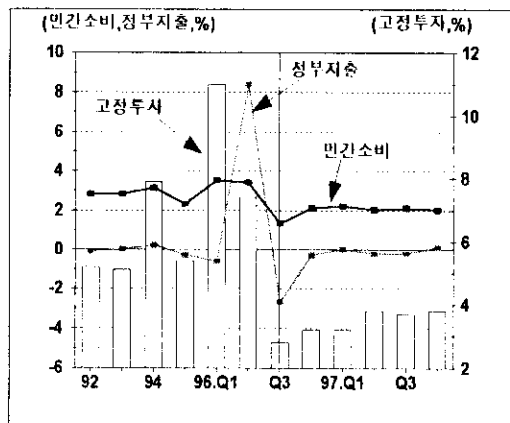
- 96년 상반기의 금리 상승으로 민간소비가 감소
- 건설 투자 등 고정투자가 2/4분기에 집중되어 3/4분기에는 크게 감소
- 3/4분기 이후 안정된 고용과 물가, 잠재 성장에 가까운 성장률 등으로 미국 경제는 안정 국면에 돌입

<미국 거시 지표 추이 및 전망>



주 : 96년 4분기부터는 WEFA의 전망치

<미국 국내 수요 추이 및 전망>



97년 안정 성장 예상

○ 97년 성장률은 96년과 비슷한 2%대의 안정 성장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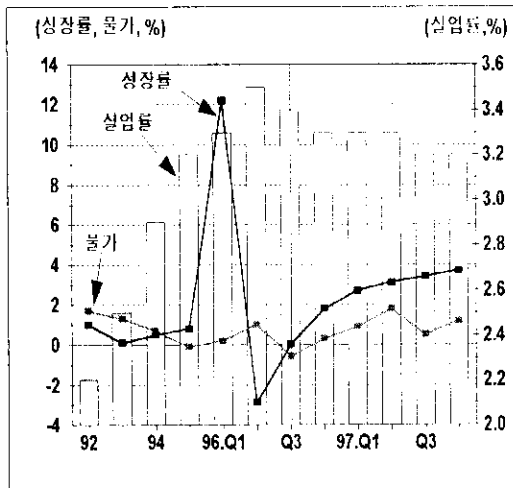
- 고용 안정과 실질 가처분 소득의 상승으로 민간 소비의 꾸준한 상승
-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한 공공 투자의 감소로 총 고정 투자의 상승세는 미약할 듯
- 소비자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어 급격한 긴축 통화 정책(공급리 인상) 가능성은 낮음
- 임금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공급리의 소폭 인상 가능성은 상존

2) 일본 경기 현황 및 97년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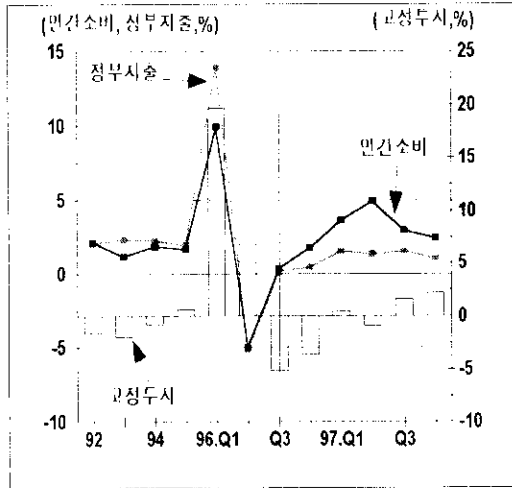
일본 경제, 96년 2/4분기 이후 둔화

- 일본 경제의 회복세는 2/4분기 이후 둔화
 - 공공 투자 및 지출, 민간 소비가 감소
 - 총 14조 엔 규모의 정부 지출이 95년 4/4분기와 96년 1/4분기에 대부분 집행되어 2/4분기 이후 급격히 감소
 - 고용 사정이 호전되지 않아서 민간소비도 감소

<일본 거시 지표 추이 및 전망>



<일본 국내 수요 추이 및 전망>



주 : 96년 4분기부터는 WEFA의 전망치

97년에 경기 회복세 유지 전망

- 97년에는 96년보다 다소 낮지만 2%대의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
 - 96년의 3%대 성장세는 1/4분기의 예외적인 고성장이 원인
 - 97년에는 전분기에 걸쳐 고른 성장이 예상
 - 97년에는 공공 부문의 부진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의 꾸준한 성장이 이루어질 전망
 - 그동안의 저금리와 고용의 점진적인 회복으로 민간 소비가 3~5%의 성장세를 유지할 듯
 - 엔저의 영향이 가시화되어 수출의 회복이 예상

<일본의 수출 증가율(%) 추이 및 전망>

| | | | | | |
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1992 | 1993 | 1994 | 1995 | 1996(F) | 1997(F) |
| 1.5 | -6.9 | 0.5 | 2.3 | 9.0 | 10.8 |

자료 : WEFA, *World Economic Outlook*, 1996. 11.

- 97년에는 재할인율을 포함한 공금리의 인상 가능성이 큼
- 일본은행이 민간 수요에 의한 경기 회복 시점을 금리 인상 시점으로 판단
- 97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(3% → 5%)이 소비 회복세를 크게 둔화시킨다면 일본 경기의 회복 시점과 금리 인상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

<일본의 임금 증가율, 가계 저축률 및 공금리 전망>

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| 1994 | 1995 | 1996(F) | 1997(F) |
| 임금 증가율(% , 전년비) | 1.2 | 0.8 | 1.4 | 2.0 |
| 가계 저축률(% , 평균) | 13.2 | 11.5 | 11.0 | 10.4 |
| 콜 금리(% , 평균) | 2.13 | 1.14 | 0.44 | 1.47 |

자료 : WEFA, *World Economic Outlook*, 1996. 11.

DIR(Daiwa Institute of Research), *Japan's Economic Outlook*, 1996. 10.

<미·일 경제 전망(연간)>

(%, 십억 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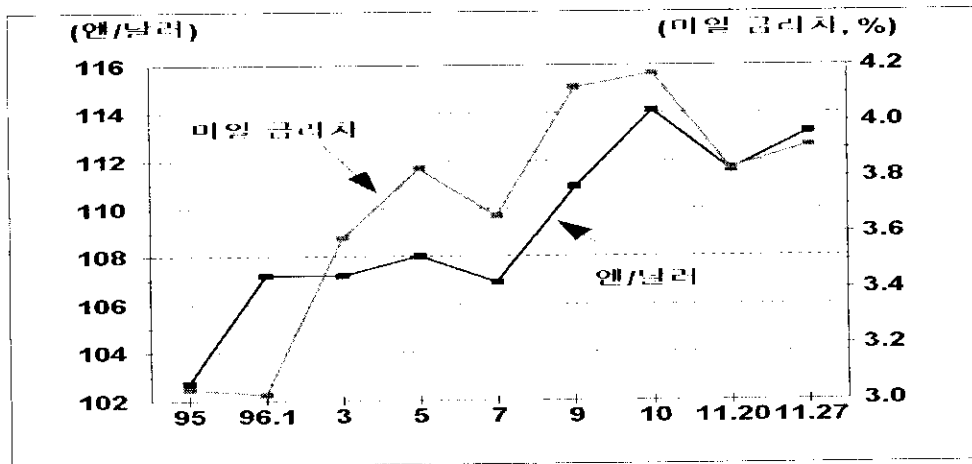
| | | | | | | |
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| 미국 | | | 일본 | | |
| | 95 | 96(F) | 97(F) | 95 | 96(F) | 97(F) |
| 실질 GDP 성장률 | 2.0 | 2.2 | 2.2 | 0.8 | 3.8 | 2.1 |
| 실업률 | 5.6 | 5.4 | 5.6 | 3.2 | 3.4 | 3.2 |
| 소비자 물가 상승률 | 2.8 | 2.9 | 2.7 | -0.1 | 0.1 | 0.7 |
| 경상수지 | -148.2 | -149.5 | -148.0 | 110.7 | 47.4 | 48.9 |

자료 : WEFA, *World Economic Outlook*, 1996. 11.

3) 97년 엔/달러 환율 전망

- 10월말에 114엔에 이르렀던 엔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가 11월에는 소폭 하락
 - 美 대선 이전의 달러화 강세는 미일간 금리차의 확대가 주요인
 - 미국 및 일본 정부에서 달러화 강세를 지지한 것도 원인
 - 美 대선 이후 양국 정부에서 달러화 강세 정책의 수정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달러화 가치가 소폭 하락
 - 양국간의 금리차가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아서 하락 폭이 제한

<엔/달러 환율 및 미일 금리차 추이>



주 : 미일 금리차는 미국 국채(30년)와 일본 국채와의 차이임

97년 달러 강세 둔화
예상

- 몇가지 가능성 속에서도 97년에 달러화 가치는 소폭 하락하여 106~109엔대가 전망됨
 - (시나리오 1) 110엔대 이상의 달러화 강세가 가능한 경우
 - 일본의 소비세 인상 → 민간 소비 대폭 위축 → 97년 성장률이 0%대로 급강하할 경우(노무라 연구소)

- 미국이 달러화 강세를 지속적으로 지지 : 달러화 가치의 상승에 의한 수출 감소라는 부정적 효과보다 물가 안정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(WEFA)
- (한계) 대선 이후 미국 정부가 무역수지 적자 감축이 중요함을 시사함에 따라 지나친 달러화 강세는 방치하지 않을 듯
- (시나리오 2) 100엔대 이하의 달러화 급락이 가능한 경우
 - 미국의 對일본 통상 압력이 커질 경우 :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및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보다 크게 확대
 - (한계) 97년에도 미국 경기가 비교적 건설할 것으로 전망되고, 미국 정부에서도 국내 물가 상승 우려로 달러화의 급락은 반대
- (종합 평가) 두가지 시나리오의 한계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달러화 가치의 급등 및 급락 가능성은 낮지만, 미일간 금리 격차의 축소,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 재확대, 지속적인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소폭 약세 예상

<미일 금리차와 일본 및 미국의 무역수지 전망>

| | 1995 | 1996(F) | 1997(F)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미일 금리차(%) | 3.1 | 3.9 | 3.5 |
| 일본 무역수지(10억 달러) | 130.9 | 88.3 | 123.1 |
| 미국 무역수지(10억 달러) | -173.4 | -170.7 | -174.1 |

자료 : ING(ING Banks), *Economic Research-Bank Notes*, 1996. 10.
WEFA, *World Economic Outlook*, 1996. 11.

<엔/달러 환율 추이 및 전망>

| | 1994 | 1995 | 1996 | | 1997 | |
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| | | DRI | WEFA | DRI | WEFA |
| 기말 기준 | 99.6 | 102.7 | 110.0 | 108.0 | 106.0 | 113.0 |
| 기간 평균 | 102.2 | 94.1 | 109.0 | 107.6 | 106.0 | 110.5 |

자료 : DRI, *World Markets Executive Overview*, 1996. 3/4분기
WEFA, *World Economic Outlook*, 1996. 11.

4) 국제 금리의 향방

97년 미국 금리 상승 전망

- 미국 금리는 97년에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
 - 97년에도 미국 경제는 고용 호조와 소비 증가에 따른 건실한 성장이 예상됨
 - 그러나 의회를 중심으로 재정적자의 본격적인 축소 노력이 예상되므로 금리 상승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 - 재정 긴축은 국채 발행의 감소를 통해 금리 하락(채권 가격 상승) 요인으로 작용
- 현재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 금리는 97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
 - 일본 경제의 성장세는 97년에는 전년보다 다소 둔화되어 2%대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며 성장을 주도하는 부문은 공공에서 민간 부문으로 옮겨갈 것임
 - 이에 따라 저축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물가가 완만한 상승을 나타내어 금리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임
 - 그러나 97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 등으로 일본 경기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진다면 금리 상승폭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

<국제 금리 전망>

(단위 : %, 기말 기준)

| | 95 | 96 | | | 97 | | |
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| | FT | ING | CR | FT | ING | CR |
| 유로 달러 | 5.63 | 5.70 | 5.75 | 5.60 | 6.00 | 5.50 | 6.10 |
| 미국 국채 | 5.56 | 6.75 | 6.75 | 6.80 | 7.05 | 6.75 | 6.85 |
| 유로 엔 | 0.48 | 0.63 | 0.40 | 0.60 | 1.06 | 1.25 | 1.10 |
| 일본 국채 | 2.90 | 2.90 | 2.90 | 3.20 | 3.35 | 3.75 | 3.60 |

자료 : FT(Financial Times), *Currency Forecaster*, 1996. 11.
 ING(ING-Baring Banks), *Economic Research-Bank Notes*, 1996. 10.
 CR(Credit Lyonnais), *Economic and Financial Research*, 1996. 10.

2. 국내 부문

(1) 시장 개방의 확대

1) 시장 개방 확대

97년 국내 시장 개방률 99.9%

○ 97년 시장 개방률은 99.9%로 국내 상품 시장이 완전 개방 수준에 접근

○ 외국인 투자 개방률도 98.4%에 도달

- 특히 금융업, 도소매업과 같은 서비스업도 대부분 개방됨

<수입 자유화 추이>

(단위 : 개)

| | 1991 | 1992 | 1993 | 1994 | 1995 | 1996 | 1997 |
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총품목수 | 10,274 | 10,274 | 10,417 | 10,502 | 10,502 | 10,502 | 10,502 |
| 제한승인품목 | 376 | 242 | 197 | 150 | 101 | 70 | 8 |
| 자동승인품목 | 9,898 | 10,034 | 10,218 | 10,352 | 10,401 | 10,432 | 10,494 |
| 수입자유화율(%) | 96.3 | 97.7 | 98.1 | 98.6 | 99.0 | 99.3 | 99.9 |

자료 : 무역협회

<연도별 외국인 투자 개방 계획>

(단위 : 개)

| | 97.1 | 98.1 | 99.1 | 2000.1 | 계 | 유 보 |
|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|----|--------|
| 전면 개방 | 27 | 4 | 6 | - | 37 | 미개방18 |
| 부분 개방 | 1 | 7 | - | 2 | 10 | 부분개방26 |
| 계 | 28 | 11 | 6 | 2 | 47 | 44 |
| 투자자유화율(%) | 97.4 | 98.2 | 98.3 | 98.4 | - | - |

자료 : 재경원, 「외국인투자 개방 확대」, 1996. 5. 14.

주 : 자유화율 = (전면 개방+부분 개방)/총업종수(1,148 개) × 100

2) 시장 개방의 영향

① 소비재 수입 증가

소비재 수입 급증

○ 소비재 수입이 급증하여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대

- 소비재 유형별 수입 추이를 보면 개방과 관련된 국산품의 가격 경쟁력 저하와 고급품 수요 증대에 따른 수입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

<재화별 수입 추이>

(단위 : 백만 달러, %)

| | | 1993 | 1994 | 1995 | 1996.1~9 |
|-----|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소비재 | 금액 | 8,717 (3.2) | 10,835 (24.3) | 13,807 (27.4) | 13,802 (20.7) |
| | 비중 | 10.4 | 10.6 | 10.2 | 11.2 |
| 자본재 | 금액 | 30,767 (-0.1) | 40,657 (32.1) | 53,807 (32.3) | 48,362 (8.7) |
| | 비중 | 36.7 | 39.8 | 39.8 | 39.2 |
| 원자재 | 금액 | 44,315 (4.2) | 50,857 (14.8) | 67,505 (32.7) | 61,126 (10.1) |
| | 비중 | 52.9 | 49.7 | 50.0 | 49.6 |

주 : ()내의 수치는 전년 동기비 증가율임

<소비재 유형별 수입 추이>

(단위 : 백만 달러, %)

| | | 1985 | 1990 | 1995 | 1996.1~7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국내생산량 부족에 따른 수입 | 금액 | 1,483.0 | 2,908.9 | 5,117.4 (23.4) | 3,646.4 (25.2) |
| | 비중 | 72.7 | 52.3 | 41.8 | 42.4 |
| 국산품의 가격경쟁력 저하에 따른 수입 | 금액 | 78.6 | 366.0 | 1,622.0 (67.2) | 1,179.2 (39.1) |
| | 비중 | 3.9 | 6.6 | 13.3 | 13.7 |
| 고급품 수요증대에 따른 수입 | 금액 | 479.7 | 2,291.3 | 5,502.1 (41.7) | 3,767 (24.8) |
| | 비중 | 23.5 | 41.2 | 44.9 | 43.8 |
| 내수용 소비재 | 금액 | 2,041.2 | 5,566.2 | 12,241.5 (36.0) | 8,592.6 (26.7) |
| | 비중 | 100 | 100 | 100 | 100 |

자료: 한국은행, 「최근의 소비재 수입 구조 분석」, 1996. 9. 11

주 : ()내의 수치는 전년 동기비 증가율임

② 서비스 부문 외국인 투자 증대

도소매업과 금융업의
외국인 투자 확대

- 도소매업과 금융업의 외국인 투자 급증
- 96년 상반기 제조업 투자 증가율은 39.5%, 비제조업은 672.4% 증가
- 특히, 도소매업과 금융업 증가율이 각각 986.7%와 218.3%로 이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폭증

<산업별 외국인 투자 추이>

(단위 : 백만 달러, 건, %)

| | 1994 | | 1995 | | 1996.상반기 | |
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
| | 건수 | 금액 | 건수 | 금액 | 건수 | 금액 |
| 제조업 | 136 | 402 (-23.8) | 195 | 884 (120.0) | 98 | 772 (39.5) |
| 전기전자 | 14 | 63 (39.6) | 40 | 228 (261.2) | 21 | 197 (51.5) |
| 기 계 | 43 | 49 (-2.2) | 59 | 102 (109.2) | 25 | 69 (8.2) |
| 화 공 | 9 | 107 (-55.7) | 30 | 174 (63.1) | 19 | 184 (51.2) |
| 운송용기기 | 10 | 66 (50.2) | 16 | 72 (8.8) | 5 | 225 (672.4) |
| 비제조업 | 278 | 915 (76.8) | 361 | 1,058 (15.6) | 200 | 496 (-0.1) |
| 도소매업 | 18 | 22 (-65.9) | 42 | 138 (538.3) | 27 | 152 (986.7) |
| 무 역 업 | 130 | 101 (10.0) | 154 | 107 (5.3) | 79 | 66 (-3.3) |
| 금 용 업 | 9 | 294 (415.3) | 23 | 378 (28.7) | 7 | 122 (218.3) |
| 계 | 414 | 1,317 (26.1) | 556 | 1,941 (47.5) | 298 | 1,268(20.8) |

자료 : 재정원, 「재정금융통계」, 각 호.

주 : ()내의 수치는 증가율임. 단, 96년 상반기는 95년 1~7월 대비 증가율임

- 수출입과 관련한 화물 운수 및 무역 관련 서비스와 건설, 여객 운수는 비교 우위가 있으나 통신, 컴퓨터 정보, 광고, 보험 등과 같이 제조업의 생산성을 촉진하는 생산적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은 취약
- 따라서 향후 취약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급증할 전망

<우리나라 서비스 부문의 무역특화지수>

| | 1988 | | 1995 | | 수출 | 수입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|-------|----|--------|--------|
| | 특화지수 | 순위 | 특화지수 | 순위 | | |
| 서비스 전체 | 0.13 | | -0.05 | | 25,102 | 27,473 |
| 운수 | -0.02 | | -0.00 | | 10,578 | 10,653 |
| (여객) | 0.59 | 3 | 0.43 | 4 | 1,520 | 606 |
| (화물) | 0.25 | 6 | 0.20 | 5 | 7,014 | 4,645 |
| (용선료, 운항경비) | -0.76 | 10 | -0.45 | 10 | 2,044 | 5,402 |
| 여행 | 0.44 | 4 | -0.10 | 8 | 5,150 | 6,341 |
| 통신 | 0.93 | 2 | -0.07 | 7 | 186 | 212 |
| 건설 | 1.00 | 1 | 1.00 | 1 | 576 | 0 |
| 보험 | -0.02 | 7 | -0.21 | 9 | 538 | 824 |
| 금융 | -0.82 | 11 | 0.54 | 2 | 105 | 31 |
| 컴퓨터·정보 | -0.85 | 12 | -0.90 | 13 | 5 | 94 |
| 기술용역 | -0.91 | 13 | -0.78 | 12 | 299 | 2,385 |
| 기타사업서비스 | -0.12 | | 0.06 | | 7,665 | 6,835 |
| (무역관련) | 0.38 | 5 | 0.47 | 3 | 2,100 | 748 |
| (광고) | -0.46 | 9 | -0.54 | 11 | 91 | 306 |
| (기타) | -0.38 | 8 | 0.07 | 6 | 4,967 | 4,323 |
| 개인·문화·오락 | -1.00 | 14 | -1.00 | 14 | 0 | 98 |

자료: 한국은행, 「우리 나라 서비스 무역의 비교 우위 분석」, 1996.7.12

- 주 : 1) 1995년 수출입의 금액 단위는 백만 달러
 2) 기타 운수는 용선료, 항공 또는 부두 사용료 등을 의미
 3) 순위는 경쟁력 순위

3) 종합 판단

① 소비재 수입 증가

시장 개방에 따라 비
 내구 소비재, 수요의
 고급화 촉진 예상

○ 시장 개방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분야는 경쟁
 력 취약 부문과 비내구 소비재, 그리고 수요의
 고급화가 이루어지는 분야가 될 것임

- 우선, 가격 경쟁력이 취약한 비내구 소비재 중심
 의 경공업 분야가 시장 개방 확대에 의해 큰 영향

을 받을 것임

- 또한 자동차, 전기 전자 제품과 같이 소비의 고급화가 이루어지는 분야의 시장 잠식도 확대될 전망임
- 특히 외국인 투자에 의해 도매업, 금융업과 같은 국내 서비스 부문의 시장 잠식이 크게 이루어 질 전망임

<수입 시장 개방의 영향>

| | | | 해당 산업 | 영향 |
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수입에 의한 영향 | 생산재 | 수출 산업 | 반도체 석유화학 | · 영향 미비 |
| | | 내수 산업 | 철강 공작기계 | · 경쟁력 취약 부문 수입 증가 |
| | 소비재 | 내구 소비재 | 자동차 등 | · 고급 제품과 신제품 수입 증가 |
| | | 비내구 소비재 | 경공업 | · 가격 경쟁력 취약으로 국내 시장 크게 잠식 우려 |
| 외국인 투자에 의한 영향 | 제조업 | | · 전자 등 성장 산업과 첨단 산업 중심으로 진출 | |
| | 비제조업 | | · 국내 서비스업의 경쟁력 취약으로 시장 잠식 크게 확대 | |

(2) 산업 구조의 취약

1) 산업 구조의 취약성이 제기된 배경

국내 산업 구조의 취약성 노출

- 최근 경기 하강기에는 통상적인 순환적 경기 침체기와 다른 현상이 나타남
 - 통상적인 경기 침체기 현상: 물가 하락, 경상수지 적자 감소, 수출 확대
 - 최근의 경기 침체기 현상: 물가 상승, 경상수지 적자 규모 史上 최대, 급속한 수출 침체
- 이런 이례적인 현상은 우리 산업 구조의 취약성에 기인한 것임
 - 대내적으로는 고비용 저효율 경제에 따른 산업 경쟁력의 약화
 - 대외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대외적인 적응력 약화

2) 취약성의 현실

제조업 공동화 심화

- 높은 수준의 제조업 空洞化, 취약한 제조업 지원 서비스

<GNP에서 제조업 및 생산자 서비스의 비중>

| | 제조업 비중(%) | | | 생산자 서비스 비중(%) | |
|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
| | 한국 | 대만 | 일본 | 한국 | 일본 |
| 1985 | 29.3 | 36.0 | 29.6 | 20.5 | - |
| 1990 | 29.2 | 34.4 | 28.9 | 27.4 | 45.3 |
| 1993 | 27.0 | 32.9 | 27.9 | 37.4('94) | - |
| 1995 | 27.2 | - | - | - | - |

자료: 통계청, 「세계 속의 한국 경제」, 1994

한국은행, 「한국 주요 경제지표」, 1996.

日本銀行 調査統計局, 「經濟統計年報」, 1988.

中國統計出版社, 「中國統計年叢」, 1996

주: 1) 생산자 서비스: 금융, 보험, 부동산, 사업서비스 등임.

2) 제조업 비중의 peak rate(시기)는 한국은 32.1%('88), 일본은 36.1%('73, '74)

- 1993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, 경제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하는 제조업 비중(27.2%)이 경쟁국인 대만(32.9%)은 물론, 일본(27.9%)보다 낮아, 경제 발전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제조업의 공동화 수준이 높음
- 생산자 서비스 비중이 일본에 비해 낮아 제조업의 부대 비용을 높이고 있음

수출 구조의 편중화

○ 산업의 대외적인 대응력에서 취약성

- 수출 제품의 부가가치 저하, 산업의 글로벌화 저수준
- (수출 구조의 편중화 심화) 특히 반도체, 철강, 석유화학, 가전, 자동차 등 5대 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년대에 들어 크게 높아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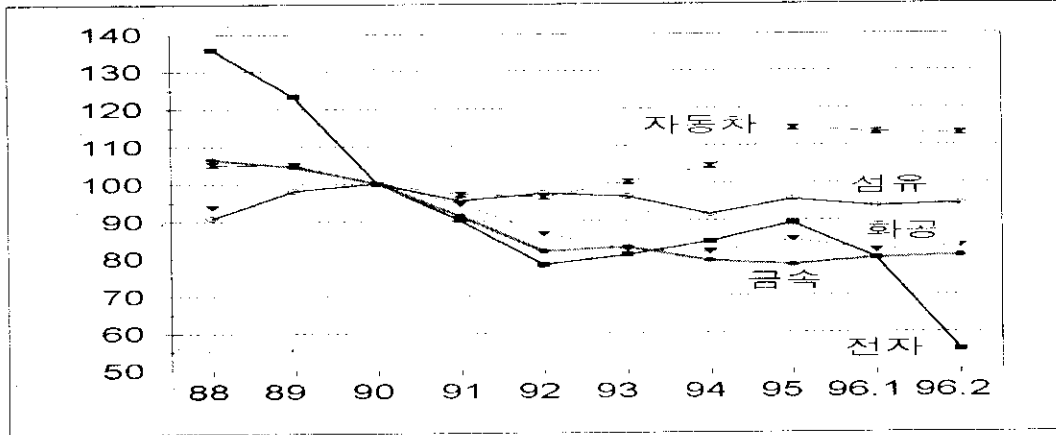
<韓·日간 주요 수출 품목의 비중 비교(%)>

| | | 반도체 | 철강 | 석유화학 | 가전 | 자동차 | 5大 품목계 |
|----|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--|
| 95 | 한국 | 17.7 | 5.8 | 4.6 | 5.9 | 6.7 | 40.7 |
| | 일본 | 5.9 | 4.0 | 6.8 | 1.1 | 12.0 | 29.8 |
| 80 | 한국 | 2.1 | 9.3 | 3.0 | 5.6 | 0.5 | 20.5 |
| | 일본 | 0.7 | 11.9 | 5.2 | 2.9 | 17.9 | 38.6 |

자료: KIET, 「실물경제」, 1996.8.14

- (수출 제품의 부가가치 저하) 부가가치화 지수를 보면, 대부분의 산업에서 1980년대 말에 비해 낮아지고 있음. 이것은 우리 수출 제품의 국제경쟁력이 점차 저하되고 있으며, 수출 주종 품목이 저 부가가치 범용 상품에 치중되었음을 보여줌
- (산업의 글로벌화 저수준) 우리 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해외 직접투자가 낮은 수준임. 지속적인 시장 확대와 통상 문제에 대한 대응력에서 취약성을 보이게 되는 원인임. 직접 수출에 의존하기보다는 현지화 등 적극적으로 글로벌한 산업 재편이 필요함

<산업별 고부가가치화 지수 추이>



주 : 고부가가치화 지수 = (수출단가지수/수출물가지수) × 100

<GNP 대비 해외 직접투자 비율 추이>

| | 한국 | 미국 | 일본 | 대만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
| 해외직접투자/GNP × 100 | 2.3%(95) | 7.5%(94) | 10.0%(94) | 3.6%(94) |

자료: 한국은행

산업 구조 조정 절실

○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산업 구조

- (업종별 기업 경영 성과) 1975년 이후 고이윤·고매출 업종은 10년마다 2개 업종씩 대폭 줄어든 반면, 저이윤·저매출형 업종은 1975년의 2개, 85년의 1개에서 95년에는 무려 6개 업종으로 증가했음
- (산업의 중심 이동) 1975년(고이윤·고매출) → 1985년(저이윤·고매출) → 1995년(저이윤·고매출, 저이윤·저매출)로 전개됨
- (산업 구조의 순환) 저이윤·저매출형 → 고이윤·고매출형으로 산업구조가 진행되어야 하는데, 실제로는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
- 이런 현상은 현재의 산업 구조 하에서는 기업 경영 성과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음을 반영함. 즉 산업 구조의 조정이 매우 절실한 시점임을 말해주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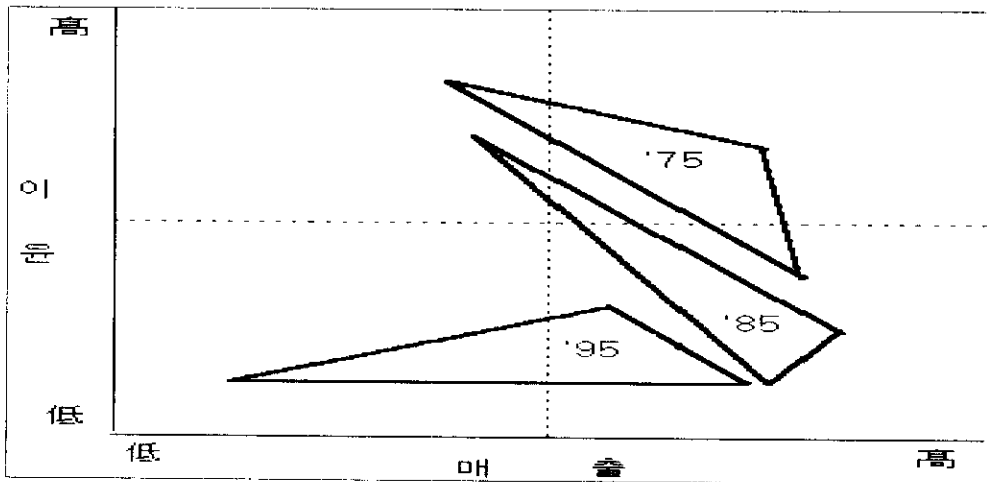
<疲勞도가 높아지고 있는 우리 산업>

| | 高이윤 高매출형 | 高이윤 低매출형 | 低이윤 高매출형 | 低이윤 低매출형 |
|----|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75 | 정밀기계, 인쇄, 고무 플라스틱, 조립 금속, 기계장비, 전기 기계, 영상음향 (6 개 업종) | 비철금속, 자동차, 조선, 화합물, 종이 (5 개 업종) | 석유정제, 신발, 목재, 음식료, 의류 (5 개 업종) | 섬유, 1차금속 (2 개 업종) |
| 85 | 전기기계, 기계장비, 고무플라스틱, 화합물 (4 개 업종) | 종이, 인쇄, 조선, 자동차, 조립 금속, 1차 금속 (6 개 업종) | 석유정제, 영상음향, 정밀기계, 신발, 기계장비, 의류, 음식료, 목재 (8 개 업종) | 섬유 (1 개 업종) |
| 95 | 영상음향, 화합물 (2 개 업종) | 종이, 1차금속 (2 개 업종) | 신발, 의류, 목재, 전기기계, 1차금속, 석유정제, 기계장비, 정밀기계, 자동차 (9 개 업종) | 섬유, 고무플라스틱, 인쇄, 비철, 조선, 조립금속 (6 개 업종) |

자료: 한국은행, 「기업경영분석」, 1976, 1986, 1996.

- 주: 1) 고이윤 고매출형: 매출액 영업이익률(%)=(영업이익/매출액 x 100)과 총자본 회전률(회)=(매출액/총자본) 모두가 제조업 평균을 상회한 업종
 2) 고이윤 저매출형: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제조업 평균을 상회하나 총자본 회전율은 제조업 평균을 밑도는 업종
 3) 저이윤 고매출형: 총자본 회전률은 제조업 평균을 웃도나,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제조업 평균을 밑도는 업종
 4) 저이윤 저매출형: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총자본 회전률 모두가 제조업 평균을 밑도는 업종
 5) 제조업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 및 총자본 회전율은 '75(7.34%, 1.14%), '85(7.81%, 1.20%), '95(8.33%, 1.00%)임.
 6) 화합물: 유기화학제품, 무기화학제품, 염료·안료 및 유연제, 화학섬유, 화학비료, 농약

<산업의 분포도 변화 추이>



<일본의 산업구조 조정 방향과 기업의 대응 전략>

| | 산업구조조정 방향 | 기업의 대응 전략 |
|------|---|--|
| 70년대 |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 → 에너지 절약형 산업 구조 | · ME 산업 진출 · 기술혁신/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영 체질 개선 |
| 80년대 | 가격 경쟁력·수출 주도 산업 구조 → 비가격경쟁력·내수 주도 산업 구조 | · 합리화 투자 · 제품 혁신 · 輸出先·製品의 다양화 |
| 90년대 | H/W형·제조업 → S/W형·비제조업 | · 신사업·제품 개발력 강화 · 일본식 경영 방식의 수정 · 적극적인 조직 혁신 |

3) 불황기 하에서 일본의 산업 구조 조정

일본은 70~90년에 걸쳐 세차례의 불황 경험

- 일본은 다음과 같은 계기로 세 번에 걸친 대형 불황기를 겪었음
 - 70년대 석유 파동
 - 80년대 중후반의 엔고
 - 90년대 복합 불황

○ 70년대 산업 구조 조정

-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(석유·화학, 금속 제품) → 에너지 절약형 산업(ME 혁명: 전자, 기계 등 경박 단소형 산업)
- 수출 주도 품목: 가공조립형 산업(자동차, 전자, 공작기계) 등
- 기업의 대응: 노동생산성 향상, 수출가격 인하, QC를 통한 품질 개선, 기술 혁신 등으로 경영 체질을 바꾸어나감
- 의의: 일본 경제 및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킨 시기였음. 불황을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아 오늘날 일본의 강한 산업 구조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음

○ 80년대 산업구조 조정

- 엔고 영향을 받은 산업: 가격 경쟁력에 기초한 수출 업종
- 산업 구조 조정 방향: ① 가격경쟁력 의존 산업 → 품질 및 기술 경쟁력 산업, ② 수출 주도 산업 → 내수 주도 산업
- 대응 전략: ① 합리화 투자의 확대, ② 기술 혁신에 의한 신제품 개발(채산성이 낮은 사업의 철수를 포함), 기존 제품의 고성능화·고기능화를 통한 비가격 경쟁력 향상, ③ 해외 직접투자의 확대를 통한 분업 체제의 구축(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생산과 시장을 연계한 국제간 분업 체제를 구축함)
- 의의: 엔고, 통상 마찰 등에 대한 대외적인 적응력을 강화시킴

○ 90년대 산업 구조 조정

- 구조 조정의 배경: 순환적 불황 + 버블 붕괴에 따른 자산 가격의 폭락 + 엔고 = 복합 불황
- 산업 구조 조정 방향: ① 비제조업종의 규제 완화 및 경쟁 도입에 따른 효율성 제고(국제 수준에 비해 매우 취약성을 보임), ② 산업 구조를 주도해 나갈 차세대 유망 산업으로 진입
- 최근 일본에서 신규 유망 산업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야: 정보통신관련 산업(DVD, PHS, VICS)^(*), Asset Management 산업, Health Care 산업
 - (*) DVD(Digital Video Disk): 멀티미디어 제품
 - PHS(Personal Handy System): 무선통신기
 - VICS(Vehicl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): 新교통정보시스템, 또는 car navigation 시스템
- 기업의 전략: 일본식 경영 및 생산 방식의 전면적인 수정(경쟁 원리 도입, 부품 조달의 탈계열화

등), 혁신적인 조직: 도입(사내 기업, 벤처기업 육성 등)

- 의의: 이번의 산업 구조 조정 여부는 기존의 가공 조립형 산업/하드웨어 산업 이외의 산업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할 수 있을지가 판가름날 것임

산업 구조의 체질 개선 시급

○ 시사점

- 불황기를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. 특히 저효율 구조를 고효율 구조로 바꾸기 위한 합리화와 기술 혁신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임
- 제품 경쟁력 원천을 가격만이 아니라 품질, 디자인 등으로 확대시켜 수출 제품의 다양화를 기해야 할 것임. 일본은 40%의 엔고('85~'86)에도 불구하고 품질 경쟁력 향상 노력을 기초로 수출이 20% 밖에 줄지 않았음
- 산업의 글로벌화 전략을 통해서 대외 적응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임. 특히 글로벌 전략은 시장과 생산간 연계, 연구와 생산간 연계, M&A 등 산업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구사할 필요가 있음
- 차세대 성장 산업이 될 새로운 유망 산업에 대한 진출에 대한 선행 투자가 필요함. 시장과 표준화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외 기업간 전략적 제휴가 긴요함

(3) OECD 가입과 금융 시장 개방

금융 시장 개방 확대 ○ 금융 시장 개방폭 확대로 주가, 금리, 환율의 변동폭이 확대되어 기업의 환위험, 이자율 위험 등 시장 위험에 대한 노출의 정도가 심화될 예 정임

| 부문 | 97 변화 내용 | 긍정적 측면 | 부정적 측면 |
|----------|---|--|---|
| 주식 시장 | -증권 거래법 200조 폐지 (주식 대량 소유 제한 제도) -3% 외국인 투자 한도 확대 | -M&A 시장 활성화/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-수요 기반 확대 | -외국 기업의 국내 기업 지배 우려 -핫머니 유입 |
| 채권 시장 | -중소기업 무보증 전환사채, 무보증 장기채 투자 허용 -일정한도내 대기업 무보증 전환사채 투자 | -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호전 -대기업의 차입 여건 호전 | -높은 금리차로 인한 해외 자본 유입의 급속한 증가 예상 |
| 단기 금융 시장 | -통화채발행 축소 -콜 중개회사 설립 | -국공채 중심의 공개시장 조작 정책 가능 -단기 자금의 효율적 운용, 비용 절감 | -단기적 금융시장 혼란 |
| 외환 시장 | -환율의 인위적 조작 금지 -원/엔 시장 개설 -일일변동환율폭 확대 (현재 2.25%) -자유변동환율제 실시 | -환율의 시장기능 제고 -엔화 환율 예측, 수급 동향 파악 가능 -환율의 시장 기능 확대 -외환시장의 가격 기능 제고 | -급격한 환율 변동 대처 불가능 -환위험의 증가 -환위험의 증가 |
| 해외 자금 조달 | -현금 차관 도입 허용 -사회간접자본 채권의 발행 | -SOC 민자 유치 활성화 -SOC 민자 유치의 활성화 | -외화의 급속한 유입에 따른 환율 변동폭 증대 -채권 공급 증대에 따른 수익률 상승 |

금융 시장간 경쟁 격화

○ 금융산업의 개방이 본격화되어 금융기관간 경쟁 격화 예상

- 금융 기관간 경쟁 격화로 인해 금융 기관들의 서비스 질이 개선되어 신용 등급이 높은 기업에게는 저리의 융자 조건이 주어짐
- 그러나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의 경우에는 차등 금리가 적용되어 오히려 높은 이자를 부담하게 됨

| 부문 | 97 변화 내용 | 긍정적 측면 | 부정적 측면 |
|----------------|--|--|---|
| 은행 | -예금보험제도 실시 -은행 점포 설치의 자유화 -외국 금융기관의 진입 자유화 -부실금융 기관의 강제 합병 | -예금자보호 -수익 기회 확대 -경쟁력 강화 -선진금융 기법의 도입 -은행의 경쟁력 제고 및 효율성 증대 | -은행 산업간 경쟁 격화 -경쟁 격화 및 시장 잠식 -은행원 감축에 대한 노조의 반발 |
| 증권 | -외국 투자가 1인당 투자 비율 폐지(투신·증권·투자자문) -증권회사의 업무 범위 확대 및 리스, 카드업 등에 자회사로 진출 가능 | -증권 수요의 확대 -증권 회사 수익 구조의 다변화 | -동종업종간 경쟁 격화 |
| 투신 | -증권, 투신의 상호 진출 | -국제 경쟁력 강화 | -경쟁 격화, 독립성 저해 |
| 보험 | -경제적 수요 심사제도(ENT)의 폐지(97년초) -해외 재보험 가입 제한 조치 철폐 (97년 3월말) -생·손보 보험브로커 제도의 국내 도입 -독립 대리점제 도입 -보험요율의 자유화 | -외국 보험사의 진입 용이 -경쟁촉진 -선진보험 인수 기법의 도입 -보험회사 서비스 개선 -보험사의 위험 분산 용이성 증대 | -경쟁 격화로 인한 국내 보험사의 영업 기반 약화 -외국 보험사에 의한 시장 잠식 |
| 카드 할부 금융 | -업무영역의 통합 및 개방 | -경쟁력 강화 | -외국 기관의 시장 잠식 |

국내적으로는 직접 금융의 활용도 제고, 국제적으로는 채권 발행 형태의 다양화 필요

○ 97년 자금 조달 시장의 방향

- 국내적으로는 은행의 대출을 통한 자본 조달 비용이 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 비용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직접금융을 통한 자본 조달에 힘써야 할 것임
-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저리의 융자 기회가 발생할 전망임에 따라 채권 발행 형태를 보다 다양화하고 그 신축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
- 전환사채, 주식예탁증서, 고정금리채, 변동금리채 등이 외국환 관리규정 및 재경원 허가 사항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함

<대내 자금 조달 방안의 장·단점과 전망>

| 조달 방법 | 장점 | 단점 | 전망 | |
|-------|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대내 자금 | 주식 시장 | -금융비용 저렴 -장기자금 조달 | -기업 경영위험 대두 -증시상황에 의존 | -과잉 공급 물량 우려 -한통주 매각 등 공기업 민영화 |
| | 채권 시장 | -금융비용 저렴 -감세효과 -장기자금 활용 -기업이미지 제고 | -전환증권 보유자의 전 환행사시 유의 -금리수준에 의존 | -다양한 상품 등장 -금리의 하향 안정화에 따른 채권가격 상승 |
| | 간접금융시장 | -조달 용이 | -금융비용 높음 -여신한도 규제 | -은행의 여수신 금리구조 급격한 변동 가능성 희박 |
| | 단기금융시장 | -조달 용이 | -금융비용 높음 | -중개비용 절감 기대 |

<대외 자금 조달 방안의 장·단점과 전망>

| 조달 방법 | 장점 | 단점 | 전망 | |
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대외 자금 | 외국본드시장 | -비용저렴 -중장기 자금조달 | -해당국의 법규, 규제 저촉 -높은 신용도 필요 | -엔화표시 본드에 비해 마르크화 본드 비중 증대 |
| | 유로본드시장 | -비용 저렴 -해당국의 법규 규제 회피 | -시장정보 비용 -국내 규제 -높은 신용도 | -중기 유로채 및 유로 상업어음 비중 증대 |
| | 현지금융시장 | -외국 현지 조달용이 -환위험 제거 | -현지 은행정보 필요 -국내 규제 | |
| | 유로달러 유로커런시 시장 | -단기자금 공급원 -해당국의 법규 규제 회피 | -시장 정보 비용 -국내 규제 | |

(4) SOC 투자 확대

1) 민자 유치 활성화 조치의 내용

- 정부의 민자 활성화 조치 발표**
- 최근에 현금 차관 확대, 적정 수익성 보장 등 새로운 민자 유치 활성화 대책을 발표
 - 지난 7월에 현금 차관 허용, 금융 지원 확대, 여신 규제 완화 등 민자 유치 활성화 조치를 내놓았으나 민간 기업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음

< 11.4 민자 유치 활성화 대책 >

| 내 용 | 세 부 내 용 | 시행 시기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|
| 1. 현금 차관 도입 허용 대상 범위 확대 | - 현금차관 도입 범위를 순공사비 1조 원 이상 1종 사업에서 순공사비 5,0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 | 97년 상반기 |
| 2. 토지 매입용 자금 대출 금지 예외 인정 | - 제1종 시설 민자 참여 기업의 토지 매입비 대출 허용 | 96년중 |
| 3. 제1종 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 | - 도로 등 제1종 시설 사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| 97년 상반기 |
| 4. 등록세 중과 배제 | - 수도권에 신설되는 민자 법인에 대해 등록세 중과에서 제외시켜 일반 세율인 자본금의 0.4%로 과세 | 96년중 |
| 5. 적정 수익성 보장 | - 무상 사용 기한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시공 이윤도 인정해 사업 시행자의 적정 수익성을 보장 | 96년중 |
| 6. 정부 재정 지원 근거 마련 | - 법인의 해산 방지 또는 사용료의 적정 수준 유지에 한정했던 정부 재정 지원의 근거를 확대 규정 | 96년중 |
| 7. 민간 제안 활성화 | - 민자 사업의 개요만 정부가 고시, 기본 계획 수립 단계부터 민간 공모 제도 도입 | 96년중 |
| 8. 민자 유치 대상 사업 범위 확대 | - 제1종 시설 부대 사업의 범위에 복합 단지 개발 사업 추가. 제2종 시설에는 국제 회의 시설 추가 | 97년초 |
| 9. 조기 완공 장려 제도 도입 | - 시설을 조기 완공할 경우 공기 단축 기간의 일정 부분만큼 무상 사용 기간을 연장 | |

자료: 「한국경제신문」, 96. 11. 5.

- 최근 민자 유치 활성화 대책의 특징은 참여의향업체들의 요구를 대폭 반영하여 사업 수익성을 보장하면서 세제상의 지원도 확대한 것임
- 민자 유치 활성화 대책으로 민자 유치 사업 방식이 정부 관리형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음
- 정부가 사업 개요만 정하고 민간 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기본 계획을 제안하는 제도를 도입, 정부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등 민자 유치에 긍정적인 조치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

2) 파급 효과 및 대응

- 대형 건설업체의 활발한 민자 유치 사업 참여**
- 대형 건설업체 중심으로 민자 유치 활발한 참여
 - 천안-논산 고속도로 사업과 대구-대동 고속도로 사업은 올 7월에 대우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되었음

< 5,000억 이상 민자 유치 대상 사업과 참여 희망 업체 >

| 사업명 | 사업비 (억 원) | 사업희망업체 | 우선협상대상자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천안-논산 고속도로 | 7,186 | 대우컨소시엄, 삼성컨소시엄, 포스코개발, 우방, 대동, 신일건설 | 대우컨소시엄 ¹⁾ |
| 대구-대동 고속도로 | 10,998 | 대우컨소시엄, 삼성컨소시엄 | 대우컨소시엄 |
| 부산-거제 연육교 | 7,000 | 유공, 대우, 삼성 | |
| 부산-김해 경전철 | 5,226 | 엘지, 한진컨소시엄, 대우, 삼성 | |
|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| 16,870 | 동부, 극동, 효성컨소시엄 | |
| 로 | 6,720 | 효성, 동부, 극동컨소시엄 | |
| 하남-춘천 고속도로 | 35,743 | 삼성, 대우, 동아건설, 엘지, 포스코개발, 대림산업, 극동건설, 금호건설 | |
| 가덕도 신항만개발(1단계) | 6,098 | 동아건설, 포스코개발, 삼부토 | |
| 영일만 신항만개발(1단계) | 38,611 | 건, 선경건설, 대림산업, 영진건설, 코오롱건설, 쌍용건설 | |
| 동서고속철도 | 5,013 | 현대건설, 동아건설, 코오롱건설, 삼성, 극동건설, 금호건설, 대우, 동부건설 | |
| 경인운하 | | | |

주: 96. 7. 「민간투자사업조정위원회」에서 의결

- 국내 건설 시장에서 SOC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, 안정적인 물량 확보로 관공사, 주택 등 타부문 사업의 수익성 제고
- 민자 유치 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경기 불황기에 적극 수주하는 것이 유리하고, 리스크가 적은 지자체 SOC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, 장기 사업 전문 인력 유치 경쟁에 대비해야 함

<민자 유치 활성화 조치의 파급 효과 및 대응 >

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|---|
| 파급 효과 | 건설 시장 구조 변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SOC 시장은 96년 전체 시장의 32%에서 2000년 36%로 증가 · 정보 통신, 주거 환경 개선 등 SOC수요 증가와 다양화 예상 - 민자 유치 공사는 국내 총공사의 10%이상으로 확대(96년도 13개 사업 9조원, 97-98년도 10개 8조원) · 현금 차입 확대: 연간 5억 달러->8억 달러) |
| | 경쟁 심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 기획력과 자금력이 월등한 대형 건설사간 경쟁 심화 예상 - 새로 현금차관 도입이 허용되는 5,000억 원이상 6개 사업 경쟁 심화 |
| | 타사업 수익성 제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민자 유치 활성화로 장기 안정 물량 확보로 관공사, 주택 등 타사업에 수익성 위주 수주 가능 |
| 대응 | 지원 확대 시기 참여 유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기 불황이 지속될 내년 하반기까지 정부 지원이 증가할 것이고 다음 경기 호황이 예상되는 99-2000년부터는 정부 지원 축소 가능 - 민자 사업 참여는 향후 1-2년 동안이 상대적으로 유리 |
| | 리스크 축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와 갈등을 겪는 사례가 많아 당분간 단독 참여보다는 건설업체가 다수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유리 - 규모적은 지자체 민자 사업 적극 참여 |
| | 전문가 양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민자 사업 활성화로 건설 기획, 파이낸싱 전문 인력 확보 경쟁에 대비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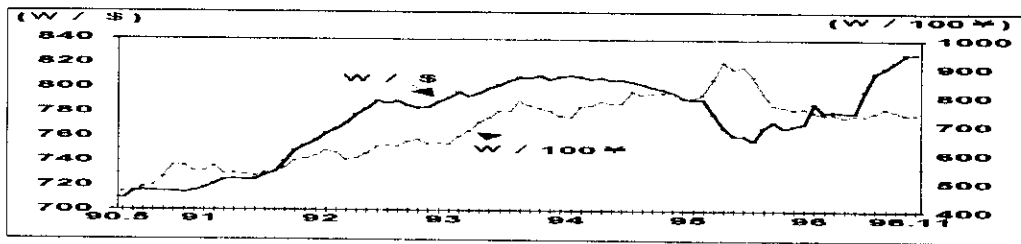
(5) 자유 변동 환율 제도 도입

1) 국내외 환율 추이

원/달러 환율 지속적
절하세

- (원/달러) 96년 6월 중순 이후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지속적인 절하세를 보이고 있음
 - 국제 외환 시장에서 달러화가 강세화되고, 국내 수출 부진과 자본 유입 둔화로 달러화 공급이 크게 부족한 것이 원화의 절하세를 유도
 - 한편 국제 외환시장에서의 달러화 강세 기조로 엔화에 대해 절상세를 보이던 원화 환율은 최근 달러화 강세가 퇴조하면서 절하세로 반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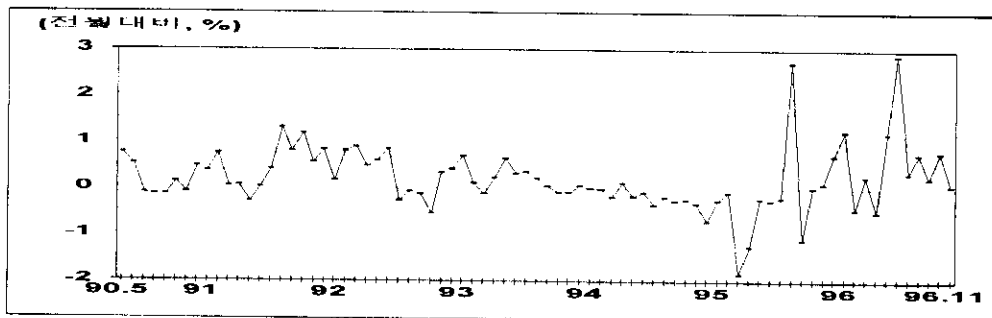
<최근 국내 환율 동향>



환율의 변동성 증대

- 한편 96년대 들어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의 변동폭은 커지고 있음
 - 이는 국내 외환 시장 규모의 확대, 국내외 금융 시장의 통합에 따른 자금 이동의 가속화 등이 그 원인이고, 제도적으로는 일일환율 변동폭이 95년 12월부터 상하 2.25%로 확대되었기 때문임

<원/달러 환율의 변동성 추이>



2) 자유 변동 환율 제도의 도입

97년부터 자유 변동 환율 제도 전환 예상

○ 정부는 97년부터 자유 변동 환율 제도로 전환할 계획임

- 자유 변동 환율 제도는 환율의 변동 폭을 제한하지 않고 외화 수급에 의해 환율이 자유롭게 결정되는 제도임
- 자유 변동 환율 제도로의 전환 이유는 자본 자유화에 따른 환율 변동성의 증대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정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임

<국내 환율 제도의 변화 추이>

| | 고정 환율 제도 | 단일 변동 환율 제도 | 복수 통화 바스켓 제도 | 시장 평균 환율 제도 |
|----|--|---|---|---|
| 시기 | 1945.10~1964.4 | 1964.5~1980.1 | 1980.2~1990.2 | 1990.3~현재 |
| 내용 | -정부에 의해 환율 결정 | -외환 증서 제도 실시를 통해 외환 수급 상황 반영 -일시적 환율 조정 가능 | -SDR 및 주요국 통화에 원화 환율 변동 연동 -정부의 제량권 반영 | -전일 국내 외환 시장의 원/달러 평균 환율을 기준으로 일일 변동 폭 지정 -上下 2.25% (1995.12~) |
| 장점 | -환위험 배제로 무역 및 장기 자본 이동 증가 -환투기 방지 | -환율 변동의 시장 기능 제고 | -환율의 안정성 및 수출 유지 -외환 개입 가능 | -시장 실세 반영 하면서 급격한 환율 변동 제한 |
| 단점 | -외화 수급에 따른 현실 환율과 괴리 | -대폭적인 환율 조정은 경제에 악영향 | -환율 조작 비난으로 수출에 악영향 -실세 반영 미흡 | -완전한 시장 실세 반영 미흡 |
| 비고 | -1달러=0.015원(1945.10)→1달러=130원(1962.6.10) | -사후 환율 조정으로 실질적 고정 환율 제도 | -금융 개방에 따른 외환 자유화 추세에 역행 | -관리 변동 환율 제도로의 전환을 의미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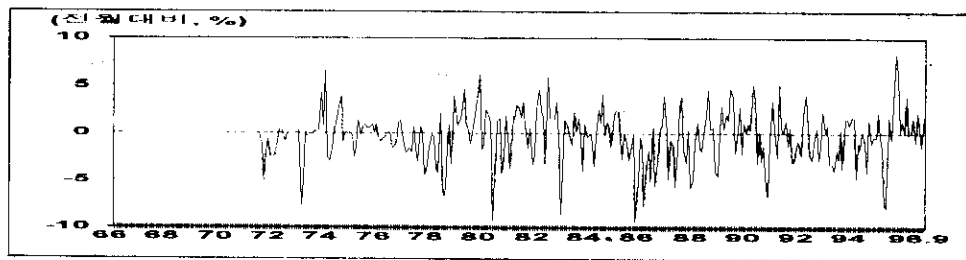
3) 자유 변동 환율 제도 도입의 예상 영향

환율 변동성 증대와 같은 부정적 영향 우려

○ 자유 변동 환율 제도의 도입은 환율의 변동에 의한 국제 수지의 자동 조정, 대외 준비고 절약 등의 긍정적 측면이 예상되나 환율 변동성 증대에 따른 부정적 측면도 우려됨

- (환율 변동성 증대) 현재의 일일 환율 변동 허용 폭이 폐지되면 환율 변동 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
- 실례로 1972년 세계 환율 제도가 변동 환율 제도로 전환되면서 엔/달러 환율 변동 폭이 전월 대비 상하 5-10%까지 확대됨

<엔/달러 환율의 변동 추이>



외환 투기 가능성 증대

- (무역·자본 거래 위축 가능성 증대) 환율 변동성 증대는 대외 거래 리스크를 높여 무역 거래는 물론 장기적인 자본 거래마저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
- (외환 투기 가능성 증대) 단기 자본 이동에 환율이 민감하게 변동함에 따라 환율 불안정시 단기 차익을 노린 외환 투기 가능성이 상존함
- (환율의 국제 수지 조정 메카니즘 왜곡) 추가적인 원화 절상(절하) 예상시 투기적 원화 수요 증가(감소)로 원화 환율은 더욱 절상(절하)
- 투기적 외환 거래 증대는 경상수지와 관계없이 환율이 결정되어 환율 변동에 의한 자동적인 국제 수지 조정 메카니즘 왜곡

4) 대응 과제

정부의 적절한 외환 시장 개입은 지속되어야 할 것임

○ 정부 측면

- 자본 유입의 증대에 의해 원화가 절상되어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어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

- 외환시장에 적절히 개입하는 변동환율제(dirty float) 유지 필요
- 자본 유출입 정도를 적절히 조정하여 환율 변동을 제어
- 기업들의 환위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
- 외환 포지션 규제 완화, 금융 선물 시장 도입 등

**기업의 환위험 관리
능력 제고**

○ 기업 측면

-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환위험 관리 능력 제고
 - 기업내 환위험 관련 전문 조직과 인력을 통합
 - 환위험을 경상 및 자본 거래, 외화 자산 부채 평가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규모의 예측·관리 필요
 - 환율 변동에 대응한 금융 기법의 적극 활용
- 중장기적으로는 수출입 가격 및 결제 통화 조정, 수출 시장 다변화, 사업 구조 조정 고려
 - 아울러 외환 정보 체계 및 변화 수용 시스템의 개발, 해외 정보망 활용, 해외 금융 자산에 대한 직접 투자 등의 노력 필요

<환위험 관리 금융 기법>

| 기업 내부 기법 | 기업 외부적 기법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- 자산 부채 관리(외화 자산과 부채의 만기 및 금액 일치) | - 선물환 시장 헤징 |
| - 네팅(기업내 채권·채무 상계) | - 단기 금융시장 헤징 |
| - 매칭(외화 자금의 수취와 지급을 통화별·기간별로 일치) | - 통화 선물 헤징 |
| | - 통화 옵션 헤징, 통화 스왑 |

(6) 자본 수지의 구조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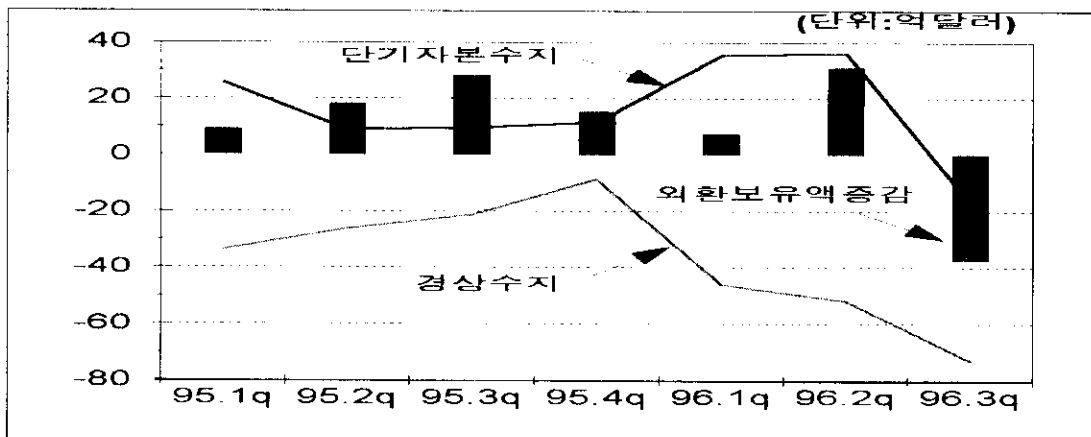
1) 최근 국제 수지 추이

- 경상수지 적자속 자
본수지 악화
- 최근 경상 수지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고 자본 수지까지 악화되면서 91년 이래 처음으로 종합 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
 - 최근 발생한 종합 수지의 적자와 외환보유액의 감소는 경상 수지 적자의 확대 및 자본의 유입 감소가 주요한 원인임

(단위 : 억 달러)

| 국제 수지 종류 | 추이의 특징 | 1994 | 1995 | 1996 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| | | | 1/4 | 2/4 | 3/4 |
| 경상 수지 | 수출 감소에 의해 적자폭이 크게 증가 | -45.3 | -89.5 | -46.1 | -51.8 | -73.0 |
| 단기 자본 수지 | 원금 상환 압박으로 단기 자본 수지 적자 | 31.6 | 55.9 | 35.6 | 36.2 | -17.1 |
| 장기 자본 수지 | 경기 침체와 환율 상승으로 순유입 규모 감소 | 58.6 | 78.3 | 13.0 | 42.5 | 26.1 |
| 종합 수지 | 경상 수지 및 자본 수지 악화로 적자로 반전 | 28.2 | 30.3 | 4.4 | 8.1 | -58.6 |
| 외환 보유액 증감 | 종합 수지의 적자로 외환보유액도 감소 | 54.1 | 70.4 | 7.4 | 31.1 | -37.3 |

< 최근 국제 수지 관련 지표 추이 >



2) 우리 나라 자본 수지 구조의 특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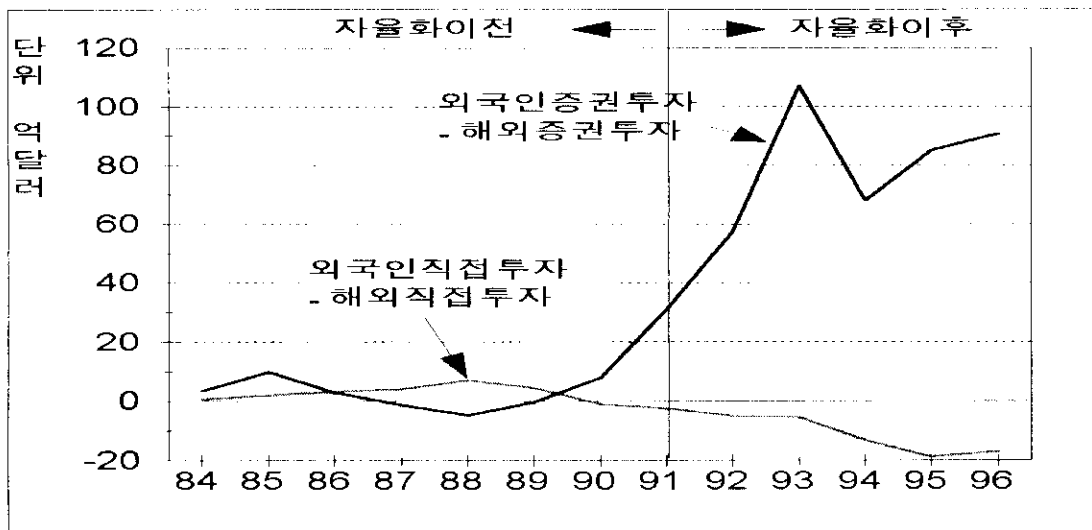
자본수지 구조는 유입 규모의 급증, 높은 금융 자본 의존도, 단기 신용의 증가 특징

- 우리나라의 자본 수지는 「유입 규모의 급증」, 「높은 금융 자본 의존도」, 「단기 신용의 증가」로 특징지을 수 있음
- 1992년 자본 거래가 본격적으로 자유화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투자가 급속히 증가함

(단위 : 억 달러, %)

| 자본 수지 구조의 특징 | | 91년 | 95년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유입 규모의 급증 | 외국인 증권 투자 | 31.5 | 89.2 |
| | 외국인 직접 투자 | 11.2 | 12.4 |
| 유입 자본 : 증권 투자 위주 | 유입 자본의 증권 투자 비중 | 73.8 | 87.8 |
| 유출 자본 : 직접 투자 위주 | 해외 증권 투자 | 0.4 | 4.0 |
| | 해외 직접 투자 | 13.6 | 31.2 |
| | 유출 자본의 증권 투자 비중 | 2.9 | 11.4 |
| 단기 신용의 증가 | 단기 무역 신용 도입액 | 186.7 | 517.5 |

<형태별 자본의 유출입 >



- 해외 금융 자본의 유출입과 단기 신용의 증가는 향후 우리 경제의 안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임

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유입 자본의 급증 | · 원화 고평가에 의한 수출 경쟁력 저하 · 경기 과열 |
| 유출 자본의 급증 | · 금리 상승 · 경기 침체 · 투자 감소 |
| 단기 신용의 증가 | · 높은 원금 상환 부담으로 국제 수지 악화 |

3) 대응 방안

단기 자본 유출입 억제 필요

- 금융 자본의 급격한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 자본의 유출입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함

| | |
|-------------|--|
| 단기 자본 유입 규제 | · 해외 단기 신용에 대한 과세 · 단기 외채에 중앙은행 지준예치의무 부과 |
| 국내 자본 유출 촉진 | · 해외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|
| 토빈(Tobin)稅 | · 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무차별적인 과세 · 단기적 투자를 억제하는 효과 · 전세계적 공조가 없을 경우 실시국에서 비실시국으로의 대규모 자금 이동 가능성 |
| 거시 경제 정책 | · 통화와 재정의 긴축 운영 · 환율 안정의 위한 환율 변동폭 제한 · 적극적인 불태화 정책은 금리 상승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음 · (칠레, 말레이시아) 적극적인 불태화 정책보다는 국내 이자율 하락을 허용함으로써 자본 유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둠 |

국내 투자 환경 개선

- 해외 직접 투자의 유치하고 국내 산업 자본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여야 함
 - 국내 투자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 간접 자

본과 같은 물리적 여건의 개선도 중요하겠지만 규제 완화 등 경제 관행의 개선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임

- 세계경제포럼(WEF)의 국제 경쟁력 보고서에서 「해외 직접 투자 유치 능력」 항목의 상위 10개국의 특징을 조사
- 상위 10개국은 홍콩, 터키, 룩셈부르크, 핀란드, 뉴질랜드, 오스트리아, 아르헨티나, 네덜란드, 독일, 싱가포르 순으로 나타남
- 직접 자본 유치 능력이 우수한 국가들이 상위 10개국 중 5개국 이상 점유한 경우를 구별하여 이들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 경쟁력 특징을 조사함
- 직접 자본의 유치 능력은 경제의 자율성, 효율성 그리고 개방도 등 관행적인 면의 선진화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
< 해외 직접 투자 유치 능력이 우수한 국가의 특징 >

| | 상위 10개국 중 5개국 이상 점유 | 상위 10개국 중 5개국 미만 점유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국제화 (41) | 전항목 | |
| 정부 (9) | 정부의 경제 활동 규제 (42) 관료주의 (29) | 정부의 규모(8) 재정 정책과 정부 저축(7) 조세(8) |
| 금융 (14) | 금융 시장의 효율성(32) 금융 시장의 안정성(24) | 금융 시장의 규모(6) 저축과 투자(6) |
| 사회간접자본(31) | | 전항목 |
| 기술 (20) | | 전항목 |
| 경영 (22) | 경영 능력 (34) | 기업가 정신 (25) 경영 전략 (10) 소비자 중심 주의 (3) 품질 관리 능력 (19) |
| 노동 (7) | | 전항목 |
| 법적·정치적 기관의 효율성 (34) | 전 항목 | |

자료 :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1996, World Economic Forum

주 : ()은 49개국 중 한국의 순위

IV. 시사점 및 과제

1. 시사점

- 97년 국내의 경제 환경은 국내 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함
 - 긍정적인 측면은 대외적인 선진국 경기 상승, 엔저 퇴조 및 유가 안정이며 대내적으로는 금융 시장 개방에 따른 기업 자금 조달 기회 확대, SOC 투자 확대 등임
 - 부정적인 측면은 대외적인 국제 금리 상승, 동아시아 경제의 둔화, 시장 개방 확대 및 금리와 환율의 변동성 증대임

<세계 경제 여건 평가>

| | 성장성 | 시장 규모 | 수출 비중 | 시장 평가 |
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미국 | 성장세 | 29.4 | 19.3 | ● |
| 일본 | 성장세 | 20.7 | 13.6 | ● |
| 유럽 | 성장세 | 14.3 | 7.1 | ● |
| 중국 | 성장 둔화 | 2.7 | 7.3 | ▲ |
| 동남아 | 성장 둔화 | 2.1 | 18.6 | ▲ |
| 중남미 | 성장세 | 3.9 | 2.0 | ● |
| 러시아 | 성장세 | 1.7 | 1.1 | ● |
| 종합 평가 | | | | ● |

- 주: 1) 시장 규모는 세계 GDP 대비 각지역 GDP 비중(%)
 2) 수출 비중은 우리 나라 총수출에 대한 각국 수출 비중(%)
 3) ●는 96년보다 호전, ▲는 96년보다 다소 악화

2. 과제

- 정부는 경기 침체 속의 경상 수지 적자 확대에 대비한 안정적 경제 운용이 필요함
 - 급격한 경기 급랭을 막기 위한 완만한 통화 정책과 수출 제고 노력이 필요함

- 통화 증가율 수치에 얽매이는 경직적 통화 관리 배제, 금리와 환율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수출 가격 경쟁력 제고 등이 필요
- 아울러 시장 개방 속도 조절 및 금융 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국내 경제가 외부적 요인에 의해 혼란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임
- 환율 동향을 감안한 자본 시장 개방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, 금융 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금융 효율화 정책 유지 필요

<97년 예상 정부 정책 방향>

| 분야 | 세부 내용 |
|----------------------|--|
| 거시 정책 방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전 재정 기조 견지 - 적정 수준의 유동성을 금리 동향에 맞추어 공급 · 통화의 간접 관리 여건 확충 · 시장 원리에 입각한 공개 시장 조작 활성화 - 환율의 안정적인 운용 · 경쟁국 환율 및 국내 수출입 동향 감안 |
| 구조적인 물가 안정 기반 정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산물·공산품에 대한 유통 구조 개선과 경쟁 촉진 -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공공 요금 인상 억제 -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집세 안정 - 합리적인 소비 생활 유도 |
| 공공 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 도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부 인력과 조직을 최대한 감축 운영 - 공기업 경영 효율화 및 민영화 추진 - 정부 투자기관의 인건비와 경상 경비 총액 동결 - 공공 기관의 각종 사업에 민간 참여 허용 - 정부 규제를 원칙적으로 사후 규제로 전환 |
| 기업 활력 회복 시책 본격 추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노동 관계법 개정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- 여성 및 고령 인력 활용 확대 - 금융 기관의 경비 절감 유도 - 상업 차관 허용 - 준조세적 각종 부담금 축소 - 기술 담보 제도 정착 - 공단 개발시 각종 부담금 면제 - 화물운송 사업에 대한 진입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물류비 절감 |
| 경쟁력있는 산업 기반 구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보 통신 사업 육성 - 자본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 - 과학 기술 혁신 5개년 계획(97~2001) 수립 추진 |
| OECD 가입과 제도·관행 개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금융 등 각 분야의 제도와 관행 개선 |

- 기업은 경영 합리화를 통한 기업 내부 조직 정비와 적극적인 틈새 시장 창출, 그리고 금융 변수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함
 - 기업 내부 구조 조정
 - 합리화와 기술 개발 투자 지속
 - 산업의 글로벌화 진전
 - 유망 산업에 대한 선행 투자 확대
 - 내부 역량 강화 전략
 - 부문별 역량 강화를 위한 質的 經營 추구
 - 적극적인 협력 업체 육성
 - 조달·생산·판매 등 각 부문별 물류 합리화
 - 정보 시스템 구축 및 네트워크化로 시너지 효과 창출
 - 시장 확대 및 창출 전략
 - 적극적인 고객 만족 경영의 실현
 - 고부가가치化의 적극 추진
 - 브랜드 이미지 개발
 - 전략적 제휴 등 외부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한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
 - 유망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해외 투자 및 현지화 전략 추진
 - 국제 정보 통신망(예:인터넷)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시장 창출
 - 시장 변화에 유연한 대응력 강화 전략
 - 금융 재무 기능 강화
 - 시장 수요와 생산의 연동성 강화
 - 생산 시스템의 유연성 증대
 - 고객 니즈의 세부적인 파악을 통하여 이를 상품 기획 단계부터 반영